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미래의 천하질서를 엿보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8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17세기 조청관계와 의순공주의 비극 4

_자금성 ① **인세원**

청의 남도번회도와 조선의 태평성시도

-18세기 조선의 중국관- 20

_중국국가박물관 ② **김아영**

흠천감에서 만난 서양과 조선 49

_흠천감 ③ **현혜림**

그들은 불타는 원명원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64

_원명원 ④ **정호승**

좌옹(佐翁) 윤치호의 청국관 88

_이화원 ⑤ **이정승**

마오쩌둥의 신중국외교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의 이상과 한계에 관하여- 108

_마오쩌둥 기념관 ⑥ **손승포**

789예술구의 운동가, 아이웨이웨이 예술의 정치학 131

_789예술구 ⑦ **강세희**

1장

17세기 조청관계와 의순공주의 비극 _자금성

인세원
조지워싱턴대학교

들어가며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궁궐, 자금성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의 희로애락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여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려 시대부터 수많은 여인들이 '공녀'라는 명칭 하에 중국으로 보내졌고, 이러한 행렬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의 공주가 청나라로 보내진 사례는 의순공주의 사례가 유일한데, 그녀가 청나라로 보내졌다 귀국하게 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종친의 딸이었던 의순공주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 전역에 반청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이 조선과 혼인 관계를 요구하자 오직 청나라에 보내질 목적으로 '공주'가 되어 도르곤과 혼인한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도르곤이 사망하고 그가 역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재혼상대마저 사망한 뒤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대신들이 조정과 합의되지 않은 일이

라며 항의하는 등 고국에서도 환영 받지 못한다. 몇 년 후, 의순공주는 28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의순공주의 굴곡진 삶은 드라마, 소설 속 등장인물의 모티브로 활용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된 바 있다. 1960년대에 이미 최소자는 “청대 한 중통혼고 – 의순공주에 대하여 –"에서 의순공주와 섭정왕 도르곤의 통혼 성립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분석했다.(최소자 1968, 17-30) 이후 김선혜는 청과 조선의 혼인이 함축하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도르곤의 통혼 정책을 이후 실질적 공납과 군사적 목적 위주로 시행되었던 청나라의 조공체제가 정착하기 이전 과도기적 시기에 행해진 외교정책으로 설명했다.(김선혜 2014, 231-265) 한편 이종묵은 “중대 황실로 간 여인을 노래한 궁사”에서 의순공주를 ‘불행한 여인’으로 설명하며 그녀를 가엾이 여기는 내용의 궁사를 전하기도 했다.(이종묵 2011, 197-230) 이 같은 의순공주의 타자화를 지적하는 최신 연구로는 정해은의 “병자호란의 상흔과 ‘의순공주’의 탄생” 이 있는데, 정해은은 의순공주가 가짜 공주로 청에 보내지게 된 배경과 귀환 과정, 그리고 후대인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 ‘이애숙’의 목소리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정해은 2020, 57-87) 이와 같이 의순공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한된 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청 혹은 조선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정치적 상황 혹은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효종 대의 조청 관계는 병자호란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관계가 정착되어가던 시점으로 이후의 조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청과 조선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조청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의순공주가 자금성에 보내졌다 돌아온 배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호 유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가 의순공주 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다. 의순공주의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상과 국제관계의 함축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희생되었던 개인의 비극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청의 복합적 대외정책과 조선에의 적용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청나라의 요구에는 당시 국제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시 청나라의 상황과 대외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대외정책이 조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천하 질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과 학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하영선의 예치, 회유, 기미, 정벌 네 가지 원칙으로 중국 천하 질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분석틀을 차용하도록 하겠다.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는 이 네 가지 원

칙의 복합적 작용을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가령 예치는 사대자소의 예를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관계이며, 회유는 예치에 비해 명분적 요소는 약하나 기미에 비해서는 비강제적 요소가 강한 오늘날의 유연 외교와 비슷한 외교 방식이었다. 또한 기미는 군사적으로 정벌하지는 않지만 외교적으로 화친하지도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며 정벌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강제적인 통치방식이다.(하영선 2019, 342-348) 한편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에서 이 네 원칙의 복합성이 두드러졌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신하기 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예치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왔는데, 정복 왕조인 만주족을 지배세력으로 하는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관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1636년 12월 발발한 병자호란이 삼전도의 굴욕으로 회자되는 조선의 항복으로 끝난 직후 조선의 항복조건으로 맺어진 '정축화약'에는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명에 대해 시행했던 조공 의례를 청에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청 태종 홍타이지는 막대한 공물뿐만 아니라 왕세자와 왕자,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삼는 등 강압적인 정책으로 조선을 압박했다. 그러던 중 1644년 청군이 북경에 입성하고 명의 수도였던 북경으로 천도하자, '대사(大事)'를 달성한 청은 조선에 대한 강압 정책도 완화하기 시작한다.(홍성구 2017, 158) 일례로 순치 연간에는 1645년, 1647년, 1651년, 1655년 등 4차례에 걸쳐 세폐 감면 조치가 있었고, 이

후에도 추가 감면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세폐액이 1637년 정축화약 당시의 1/3 수준으로 감면되었다. 이외에도 순치 연간에 칙사가 조선에 갈 때의 절차, 의례, 비용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칙사에게 제공하는 예물의 액수도 제한하여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취해졌다.(홍성구 2017, 160) 이는 청 제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벌에서 표면상으로는 예치의 성격을 띠지만 간접적인 통치라는 점에서는 기미의 방식에 '압박'의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네 가지 원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더 이상 일방적 정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청은 조선에 대한 의심과 압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시기 청이 조선을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는 조선왕조실록의 효종 대 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가령 청 사신은 칙서를 통해 조선이 성을 수리하거나 군사를 모으고 병기를 정돈하는 것이 왜국 때문이 아니라 청과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8월 27일) 또한 목화가 흉작이라는 이유로 무명베를 대신하여 쌀을 바친다고 한 것이나, 토산품을 무역하고 싶다는 청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성의와 신의가 없다고 힐책하는 등 혼인을 요구하기 전부터 조선의 신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2월 8일) 강압 정책이 점차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병자호란이 발발한 후 청은 한동안 조선을 감시 및 감

독하는 것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조선이 변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르곤이 조선과 혼인관계를 맺고자 한 것은 조선을 속박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 신붓감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청의 섭정왕 도르곤은 중사(中使) 나업(羅業)이 북경에 왔을 때 혼인 의사를 전달하는데, 나업이 중간에 이를 누설할 것을 염려하여 먼저 보내지 않다가 청사신과 동행하여 서울 근처에 도달한 뒤에야 그를 보내준다. 이는 조선의 척화론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때 나업이 효종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섭정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구왕(九王)이 부지(夫之)를 【부지는 바로 고국씨(古國氏)의 칭호이다.】 갓 잃어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국왕의 딸이 몇이며 몇 살인지 우리들이 모두 안다. 만일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가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대국에서도 전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다만 국왕이 필시 독단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물을텐데, 신하들은 반드시 「그들과 어떻게 혼인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5일)

즉, 청은 조선의 사신들이 청과의 혼인관계를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조선의 대청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순공주가 청으로 간 이후 섭정왕이 보여준 태도 변화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청이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관계를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가령 의순공주가 청에 보내진 뒤 얼마 되지 않아서는 섭정왕이 청사(淸使)를 통해 저채(紵綵) 6백 필, 적금(赤金) 5백 냥, 은 1만 냥과 함께 의순공주를 직접 맞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왕께서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실까 두렵소. 이에 특히 나의 뜻을 알리니 왕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라는 말을 전한다.(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12일) 이는 형식상의 언사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예'를 차린 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섭정왕은 태도를 바꿔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긴 것은 조선이 이들을 불성실하게 선발했기 때문이라며 조선의 사신들을 힐책한다.(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8월 27일) 원치 않은 혼인으로 타국에 간 데 이어 섭정왕이 공주의 외모를 문제 삼은 것을 의순공주가 알게 되었다면 그 비참함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도 적어도 한 나라의 공주의 신분을 가진 여인의 외모를 문제 삼아 불성실함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예'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예를 저버리는 모습에서 청나라가 혼인을 통해 예치의 차원에서 조선과 관계를 맺으려 한 것이 아니라 병자호란 이후 새로운 관계 구축 과정에서 조선을 압박할 수단을 추가한 것임을 추

론할 수 있다. 즉, 청 역시 조선이 자신들을 사대자소의 예를 바탕으로 섬길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혼인과 같은 상징적인 관계를 통해 조선을 압박하고 신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도르곤이 의순공주와 결혼한 지 일 년이 되지 않아 사망하고 청의 혼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더 이상 혼인이 청이 조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후 청국의 혼인 정책을 살펴보면 도르곤이 조선의 공주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과도기적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대 중국 본토를 점령한 만주족에 있어 황실의 여인들의 혈통은 만주족의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실의 여인은 크게 황후와 후궁으로 이루어진 황제의 배우자 그룹과 아이신교로(Aisin Gioro)의 딸들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강희제 이후 황제의 배우자 그룹은 팔기제 출신의 여인들만이 될 수 있었다.(Walthall 2008, 137) 이러한 황실의 혼인 정책은 의순공주의 귀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개윤이 청나라 사신으로 가서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하자 청 세조는 다음과 같은 칙서를 보낸다.

> “배신(陪臣)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의 딸이 과부로 집에 살고 있으면서 부모 형제를 멀리 이별하였으니, 내가 측은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다. … 지금 개윤이 공물을 바치느라 조정에 와서 그 딸을 보고자 주청하니, 전부터 가엾이 여긴 나의 뜻이 더

욱 절실해졌다. 이에 특별히 태자 태보(太子太保)의정대신(議政大臣) 합집둔(哈什屯)을 보내 귀국하게 하고 친척에 의지하여 자수(自守)토록 하니, 왕은 그리 알라"

청 세조가 의순공주의 귀국을 선뜻 허락해 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먼저 도르곤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도르곤이 사망한 뒤 1651년에 친정을 시작한 세조(순치제)는 도르곤이 생전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단죄하여 부관참시하고 그의 지위와 재산, 식구를 몰수한다. 이때 청 측의 기록에 따르면 의순공주는 누루하치의 손자 박락에게 보내졌는데, 박락마저 1652년 사망하게 된다. 이후 역적이 된 도르곤의 전 부인이면서도 명목상 조선의 공주였던 의순공주를 어떻게 처우해야 할지의 문제는 청 세조의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정해은 2020, 77)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든 이후 만주족 종족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황실의 혼인 정책이 자리 잡았는데, 때문에 청 세조 시기 이미 청나라가 더 이상 조선과 '결혼 동맹'을 맺을 계획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 이상 외교적 압박 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의순공주의 위치는 더욱 애매 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의순공주의 친부인 이개윤이 사신으로 와 공주를 보기를 청하자 청 세조는 선뜻 의순공주의 귀국을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물론 청 세조가 인간적으로 의순공주에게 측은지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의순 공주의

귀국을 허락한 결정적 요인에는 실리적 계산이 우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반청 인식과 현실적 한계

주지하듯이,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 반청정서는 지배적이었다. 비록 내실은 없었지만 북벌론이 등장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심상과 물상의 괴리 속에서 겉으로는 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청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의순공주의 사례는 민중과 지배세력 모두에 팽배했던 반청인식과 그럼에도 저항할 수 없었던 조선의 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이다.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금오동 천보산에 있는 정주당터와 족두리 산소에 얽힌 일화는 병자호란 이후 상처 입은 민중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족두리 산소는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가던 도중 평안도 정주에 다다르자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 놈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가마를 멈추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는데, 공주의 주검은 찾지 못하고 족두리만 건져 올려 천보산에 의관장을 하게 됐다고 하여 지어진 산소의 이름이다. 또한 정주당터는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멀리 북쪽 정주당 땅만 바라보며 딸을 찾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

앞서 언급했듯 정사는 족두리 산소와 정주당 터에 얽힌 설화와 다르게 흘러간다. 의순공주는 청나라에 도착하여 섭정왕과 혼인을 했으며, 과부가 되어 조선으로 다시 귀국한 뒤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일화가 남아 있는 것은 의순공주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민중이 알지 못했을 정도로 의순공주의 귀국 과정과 이후의 삶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거나 혹은 민중이 알면서도 애써 후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두 가지 일화는 조선의 공주가 청으로 시집을 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당시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순공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살아 있음에도 존재를 부정당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의순공주'는 조청관계의 구조적인 갈등 속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지워진 것이다.

민중들이 이처럼 청나라로 시집간 의순공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보상을 받은 반면, 조선의 지배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청의 혼인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제로 공주를 보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중사(中使) 나업(羅業)을 통해 섭정왕 도르곤의 혼인 의지를 알게 되는데, 이때 나업은 효종에게 도르곤의 혼인 요구를 전하면서 "혼인에 관해서는 신이 응답하기를 '현재 있는 공주는 2살이다.'고 하니, '공

[1] 의정부시, 의순공주와 정주당터.
https://www.ui4u.go.kr/tour/contents.do?mId=0305040000

주의 나이가 어리면 종실(宗室) 가운데 적합한 자로 선택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청나라에서의 상황을 보고한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공주가 2살이라는 나업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효종은 인선왕후 사이에 딸 여섯과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1950년 당시 첫째 숙신공주는 일찍 사망하였고 둘째 숙안공주가 15살, 셋째 숙명공주가 11살, 넷째 숙휘공주가 9살, 다섯째 숙정공주가 6살, 막내 숙경공주가 3살이었다.(정해은 2020, 68) 둘째 숙안공주는 이미 혼인하였지만, 현재 있는 공주가 2살이라는 나업의 말은 명백히 거짓이었던 것이다. 사신이었던 나업이 조정의 뜻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조선 왕실의 계보를 거짓으로 고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청국에 대한 조선의 만연한 반감을 숙지하고 있던 그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은 도르곤의 요구를 거절할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청의 의심과 힐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정은 도르곤의 사돈 관계 요구를 수락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청에 보낼 여인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청의 입장에서는 기만적일 수 있는 공주 선발 과정이 이처럼 가능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관료들이 친청 성향을 띠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금림군 이개윤이 자신의 딸을 효종의 양녀로 삼을 것을 자원하면서 그의 딸 이애숙은 청의 요구가 있고 한 달이 안 되어 효종의 양녀 의순공주의 삶을 살게 된다. 친아버지 이개윤은 그 대가로 가덕(嘉德)의 품계가 더해지고, 비단과 미두를 후하게 하

사받는다.(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25일) 얼마 후 애숙의 오빠였던 이준과 이수도 각자 장릉 참봉과 전설사 별검에 봉해진다.(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1일) 당시로써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청나라에 딸을 시집 보낸 대가였다. 인간적으로는 비정한 아버지로 보일 수 있더라도, 효종의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종친의 딸을 보냄으로써, 외교적 실리를 취할 수 있게 해준 충신이었을 것이다. 효종은 이로써 청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누그러질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9일)

이처럼 의순공주를 보낸 것은 반청인식이 현실적 한계에서 부딪힌 상황에서 실리를 추구한 결정이었기에, 도르곤이 사망하고 막상 의순공주가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않자 그녀는 외면 받게 된다. 심지어 조선의 지배층은 의순공주가 순치제의 허락 하에 조선으로 돌아오자, 청나라에 가서 조정과 상의 없이 딸을 돌려달라고 청한 이개윤을 삭탈관작 할 것을 청한다. 가령 대사간 조한영과 사간 심세정은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간 것은 조정의 명령 때문이었으니 의순 공주가 돌아오는 것도 또한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개윤의 치죄를 청한다.(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윤5월 10일)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보내진 것은 민중에게나 지배층에게나 비통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귀환이 환영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청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예치’가 아닌 외교적 난제였으며, 도르곤의 요구에 순응하여 신붓감

을 찾아낸 것도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실리를 추구한 행위였던 것이다.

결론

의순공주가 청나라에 보내지고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명나라가 멸하고 청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변동과 조율 과정을 겪고 있었던 17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있었다. 즉, 17세기 중반 이후 청과 조선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청나라가 조선이 명에 시행했던 의례를 똑같이 요구하면서 '예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적어도 효종대까지 그 실상은 정벌에서 기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나라와 조선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조망해 보고 동시에 의순공주의 삶을 논의하면서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조청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나라의 관점에서 섭정왕 도르곤과 청 세조가 어떻게 국가의 기반을 정비해 갔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의순공주의 혼인 및 귀국 과정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의 대청인식을 조선왕조실록과 의순공주와 관련된 설화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의순공주가 보내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청인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해석하고, 당시 지배층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민중에 만연했던 반청정서를 재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역시 표면적으로만 예치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비극은 종종 사회현상과 그 시류의 흐름에 기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의순공주의 삶이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그녀의 삶의 굴곡이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하에서 조선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애숙은 '의순공주'가 되는 순간부터 청나라와 조선의 국제정치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삶 자체가 완전히 좌지우지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고국에 돌아와서 조차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의 압박 속에서 28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규정했던 '예'는 청나라가 명나라의 자리를 대신한 이후 조청관계에 부재하였지만, 의순공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조선 혹은 청이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논저

하영선, 《사랑의 세계정치》, 한울 아카데미, 2019

Walthall, Anne. Servants of the Dynasty: Palace Women in World History. 1st ed. *California World Histor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

김선혜, 〈청과 조선의 통혼과 시녀 문제〉, 《중국사연구 》 91, 중국사학회, 2014, 231-265쪽

박민수, 〈섭정왕 도르곤의 북경 점령과 천도의 실행〉, 《명청사연구 》 48, 명청사학회, 2017, 455-501쪽

박주영, 〈병자호란 직후 속환부녀(贖還婦女)의 이혼 문제〉, 《서강인문논총》 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20, 193-235 쪽.

이종묵, 〈중국 皇室로 간 여인을 노래한 宮詞〉,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197-230쪽

정해은, 〈병자호란의 상흔과 '의순공주'의 탄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57-87쪽

최소자, 〈청대 한중 통혼고 의순공주에 대하여〉, 《이대사원》 7,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68, 17-30 쪽

홍성구,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관계의 안정화:1644~1700〉, 《동양사연구》 140, 동양사학회, 2017, 155-194쪽

2장

청의 <남도번회도>와 조선의 <태평성시도>: 18세기 조선의 중국관
_중국국가박물관

김아영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이번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 16기 중국국가박물관 답사보고서는 중국국가박물관 청조 시대의 그림 '남도번회도'를 주제로 명청교체기 조선의 중국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나라의 〈남도번회도〉가 조선의 〈태평성시도〉에 영향을 주고, 미적 요소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당시 문명 표준의 궤적을 추적하며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나라의 〈남도번회도〉가 어떻게 조선에서는 〈태평성시도〉라는 그림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두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문명 표준'의 예로 상업의 발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업'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명청교체기 18세기 당시

청나라와 조선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에서는 건륭제 통치 아래 영토의 광대한 확장과 인구의 팽창을 겪으면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건륭의 통치방식 입니다. 전왕조인 명으로부터 중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본 틀을 빌려오는 한족의 요소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정복자 엘리트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기반한 청, 만주족 특유 방식의 통치를 행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한 이후, 과거 명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북벌론을 견지하는 입장과 조선의 미래를 위해 청나라의 발전된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북학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통치방식의 한족 요소와 만주족 요소의 공존, 조선의 북벌론과 북학파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명청교체기 명나라의 요소와 청나라의 요소가 공존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번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 16기 중국국가박물관 답사보고서를 통해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상황을 각각 보여주며 1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을 중국과 한국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남도번회도〉와 건륭제



중국국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도번회도〉는 18세기, 건륭제가 청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도번회도〉에는 남경 도시의 상업 흥성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가면서 교외-번화가-궁성의 모습이 차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 부분의 번화가가 화폭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묘사 또한 비교적 더 세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상점가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의 수는 천 명이 넘고, 백 개 이상의 간판들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어떤 상점에서 무슨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까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명나라 후기부터 쑤저우(Suzhou)를 통한 무역과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되기 시작된 유럽 미적 양식의 영향(Verisimilitude, life-like)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쑤저우(Suzhou)는 오랫동안 부와 학문, 예술 활동의 가장 안정적인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약 60만 명의 도시와 교외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부와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쑤저우를 포함하는 강남지역은 건륭의 가장 중요한 여행지역 이었습니다. 북경에서 남쪽으로 약 16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강남 지역은 금전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당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건륭의 시대에 강남은 중화제국에서 전체 농지의 16퍼센트를 차지했지만, 현금으로(은으로 납부) 정부의 토지세 수익의 29퍼센트를, 현물로는(곡식으로 납부) 정부 세수의 38퍼센트를 제공했으며,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곡식으로 보내지는 공물의 64퍼센트를 감당했습니다. 이외에도 황제의 윤허 아래 강남 상인들이 운용하는 소금의 전매로부터 발생하는 돈이 모든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시장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생산될 정도로 번창하던 중국의 비단산업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도시들은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는 차, 자기, 목재, 면화를 비롯한 온갖 상품들이 모이는 주요한 집결지 였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남의 중요성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강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과거시험 합격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이는 곧 권력의 상층부는 강남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문화의 배경에서 사원, 수도원, 정원, 호수, 식당, 도서관 등 강남 지역에서 보이는 유명한 장소들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800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작가들이 이들 장소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시와 수필로 찬미했고 항주, 소주, 양주, 남경 같은 강남의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명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문화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서주번화도는 이러한 강남 지역 쑤저우의 웅장한 도시 인프라를 보여주고 주요 상업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업적·문명적으로 번성하는 쑤저우의 배경은 이 도시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동시에 유럽 미적 양식을 통해서 건륭제 시대 궁정의 자존심과 황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능합니다.

16세기 이후 서주 지역의 경제가 두드러지게 성장하면서 다수의 서화수장가 집안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한정된 서화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서화를 수집하게 되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안작(贋作: 위조)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선 송대의 청명상하도가 여러 수장가들을 거쳐 당대의 권력가 엄숭의 소장품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쑤저우를 통한 청명상하도의 뜨거운 수장 열기를 반증합니다. 황실수장품이 되었던 청명상하도는 명말 태감 풍보의 소장품이 되었다가 풍보의 사후 1582년경부터 왕조교체의 혼란기에 다시 한 번 민간에 유전되어서 이후 륙비지(陸費墀: 1731-1790), 필원(畢沅: 1730-1797) 등의 수장을 거쳐 1773년 건륭제의 황실 수장품이 되었습니다. 명청대 청명상하도가

소주에서 다량 제작되었던 데는 소주문인이 중심이 된 수장가들의 수장열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경본 장택단의 청명상하도가 소주의 수장가들에게 수장되고 그 화명이 높아져 경쟁적으로 수장되면서 무명화가들에 의한 소주편 청명상하도와 이에 영향을 받은 서주번화도나 남도번회도와 같은 작품들이 당시 미술시장에 등장하였고 이 같은 사조가 옆 나라 조선에도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쑤저우를 포함하는 상업적 번성의 메카 강남지역과 장소의 구도, 원근법이나 세밀한 묘사(Verisimilitude, life-like), 명암대비법(chiaroscuro)과 같은 17세기 초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중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서양화법, 이 두 요소는 중국 청나라 자기 자신의 번성하는 제국과 영토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토의식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회화적 기술은 당시 건륭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의 통치를 찬양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청조 건륭의 천하적 통치 체제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건륭 재임기간(1736-1795)은 청 왕조의 정점이었습니다. 건륭이 권력을 잡은 지 40년이 지나, 삼분한 그의 재위 기간 중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는 광대한 영토를 포함한 자신의 세력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기초가 됩니다. 그의 영토는 황해와

인접한 해안가의 부유한 항구 도시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에 위치한 번화한 도시까지, 폭풍이 휩쓸고 간 동북 지역의 사할린부터 서남부의 눈 덮인 히말라야까지, 열대 밀림 지대인 동남부의 서쌍판납(버마와의 경계지)부터 북쪽에 위치한 몽골의 사막과 초원에까지 이릅니다. 더불어 동일한 중요성을 가졌던 오랜 건륭연간에 발생한 인구의 팽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0년에 1억 5000만 명이었던 중화제국은 1750년에는 2억이 넘어갔고, 1800년에는 3억을 너끈히 넘어섰습니다. 그 성장률은 중국의 인구가 약 4억 1000만의 인구에서 주춤세를 보인 19세기 중반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해외 무역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건륭이 지배한 영토와 인구는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뿐인 절대군주의 권위 아래 독특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통합된, 다양한 세력범위와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있던 다양한 민족들의 복합체 였으며, 하나의 핵심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았습니다. 제국 내에는 6부에 의해 관리되는 18성(전통시기 한족의 중국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전통시기 중국의 군현제의 도, 부, 주, 현 등의 행정체계와 법률, 세금, 호적 등의 제도를 계승했으며, 팔기가 주둔해 지키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건륭의 신민 중 90퍼센트에 해당했던, 2억이 넘는 한족이 가장 부유한 농업지대, 가장 밀집된 상업망과 교통망, 가장 거대한 도시, 가장 분주한 항구, 산업의 중심지, 장인들이 일하는 수많은 공장과 작업장이 있던 본토에 살았습니다. 한편, 만주·몽골·티베트와 운남·귀주·광서와 같은 남부의 성, 그리고 대만은 주변지대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대체로 중국의 중심부보다 훨씬 덜 번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몽골인, 티베트인, 터키인, 묘족처럼 비한족 집단과 같은 다양한 거주민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경제적으로는 덜 번성했었지만 제국의 안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이 본토와 주변지대는 각각 관료제도와 준군사적인 행정조직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주족의 제국은 한(기원전 206~기원후 220), 당(618~907), 송(960~1276), 원(1260~1368), 명 왕조를 계승하는 과거와의 높은 연관성을 인정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왕조인 명으로부터 중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본 틀을 빌려왔습니다. 18세기의 중국에서는 이전의 왕조로부터 훌륭한 정부가 되려는 이상을 부여 받았다는 생각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실험적 · 비공식적 · 간접적인 방식으로의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복자 엘리트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교육받은 한족의 지식층을 통치계급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던

건륭을 포함한 청조의 통치자들은 만주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과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륭은 이가 청 왕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청 조정은 모든 한족 남성들에게 복종의 표시로서 만주족의 스타일대로 머리를 깎게 했지만 동시에 관료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실효가 입증된 과거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친숙한 유학 위주의 커리큘럼을 고수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또 시험 제도를 통해 채용된 한족들이 관료 사회의 하위층과 중간층을 차지하면서도 동시에 최고 의사결정은 만주 정복 엘리트가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평성시도〉와 북학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태평성시도〉를 보면 상업공간, 즉 다양한 상점과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과 손님들의

모습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활동은 단층이나 2층 건물에 정식으로 점포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부터 가판을 하거나, 노점을 열어 소규모의 장사를 하는 것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점포 앞에 진열하는 물품이 넘쳐서 지붕 밖으로 편평한 지붕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가판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진열하는 등 상업활동이 점점 확장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상점 주인과 행인을 비롯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다량의 상품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떠들썩하고 붐비는 시장의 분위기를 매우 생생하고 활기 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근법, 생생한 묘사(Verisimilitude, life-like), 명암대비법(Chiaroscuro) 등의 서양화법이 쑤저우의 무역과 선교사를 매개로 청나라를 방문했던 조선 연행사에 의해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한국 회화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관찰에 의한 사실적 묘사(Verisimilitude, life-like)나 공간감, 거리감(원근법)의 표현 요소 등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많은 화가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 회화를 직접 보고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흡수하였거나 당시 문인(특히 실학파)들의 글에 표현된 서양화의 특징에 관한 정보(흐름)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쑤저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된 서양화법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과 실체 서양화의 유입은 당시 조선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조, 시대적 현상을 이룰 만큼 뚜렷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평성시도〉를 살펴보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조선시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명나라를 유교적 이상향이라는 강한 명분적 이념 아래 명나라에 확고한 충성을 보였던 조선, 특히 양반들의 행동을 떠올리면 잘 연결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들은 조선은 유교적 문화의 중심지인 중국 명나라의 종주국임을 인정, 자부하면서 명나라의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 상업을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 천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18세기 북벌론과 연결되는데, 이 시기 청(만주)에 대한 조선의 증오는 두 번의 병자호란 때 겪은 참상과 그에 따른 무거운 조공 요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의 양반들은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덜 발달했다고 여겨진 만주족을 멸시했고, 명나라의 위대한 유교 문화의 파괴자로서 만주, 청나라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초에 걸쳐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조선의 정치권은 특히 노론파가 지배했는데, 그들의 정치이념적 성향은 유교 해석에 대한 다소 광신적인 믿음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과 그 노선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양반들이 북벌론으로 표현되는 사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태평성시도〉라는 그림이

보여주듯이, 조선시대에도 상업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북학파들의 존재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그림과의 연결고리로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학파는 조선 후기 청나라 문명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자고 주장한 일련의 실학자들을 지칭합니다. 명분(명나라, 이념)보다 실리(청나라, 상업)를 주장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업을 중시했으며 대외무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학파 내에서도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했고 이 차이는 상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종래 주자학을 숭봉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실학파 학자들도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업은 말리라 하여 천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박제가는 상업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는 1778년(정조 2년) 사은사 체재공을 수행하여 처음으로 연행에 동참하였었고 귀국 후의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저술했던 '북학의' 에서 상업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면 장사를 하는데 참으로 현명한 생각이다. 거기서는 장사꾼으로 나서도 그 사람의 풍류와 명예는 제대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때문에 유생이 서사에 직접 출입하며, 혹은 재상들도 친히 융복사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사기도 한다. 지체 높은 사람이 물건을 사러 융복사에 온 것을 직접 목격한 일도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신분으로 시장에 출입하는 것을

모두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다. 지금 청국의 이 풍속은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다. 벌써 명, 송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겉치레만 알고 뒤돌아보며 꺼리는 일이 너무 많다. 사대부는 놀고먹으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없다.

사대부로서 가난하다고 들에서 농사를 지으면 알아주는 자 없고, 짧은 바지에다 대나무 껍질 갓을 쓰고 저자에서 물건을 매매하거나 자와 먹통, 칼과 끌을 가지고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면 그를 위해서 부끄러워하고 우습게 여겨서 혼인길마저 끊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므로 집에 비록 한 푼의 돈이 없는 자라도 높다란 갓에 넓은 소매가 달린 옷으로 어슬렁거리며 큰소리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입는 옷이며 먹는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들은 권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요행을 바라는 길이 열리고 청탁하는 버릇이 생겼으니, 시정의 장사치도 그들이 먹던 나머지를 더럽다 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보다 못함이 분명하다. (p. 106)

박제가는 이 대목에서 장사(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대부는 겉치레에만 신경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민생이 날로 곤궁해지고 재용(재물의 용도)이 날로

궁핍해지는데 사대부, 즉 양반은 팔짱만 낀 채 구원하지 않으려 하고 옛 것에만 의존하여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이를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또다른 북학파의 일원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책 '열하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 평양만 알므로 기자(箕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이를 믿고, 평양에 정전(井田)이 있다 하면 이를 믿으며, 평양에 기자묘(箕子墓)가 있다 하면 이를 믿어서, 만일 봉황성이 곧 평양이다 하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 하고 나무랄 것이다. … 비록 안으로 삼국(三國)을 합병하였으나, 그의 강토와 무력이 고씨의 강성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였는데, 후세의 옹졸한 선비들이 부질없이 평양의 옛 이름을 그리워하여 다만 중국의 사전(史傳)만을 믿고 흥미진진하게 수·당의 구적(舊蹟)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패수요, 이것은 평양이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벌써 말할 수 없이 사실과 어긋났으니, 이 성이 안시성인지 또는 봉황성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도강록 中 6월 28일 을해일)
>
> "우리나라 선유(先儒)들은 바다 저 한 편 구석에서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도록 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는, 반딧불처럼 나부끼고

버섯처럼 말라서, 겨우 하잘것없는 시편(詩篇)으로써 큰 나라의 책에 실리게 됨은 실로 영광스럽고 다행한 일이나, 우물에 떨어진 모수(毛遂)가 있는가 하면, 좌중을 놀라게 하던 진공(陳公)이 있다는 것은 불행히도 너무 지나친가 봅니다. (태학유관록 中 가을 8월 9일 을묘)

이 둘은 우리나라 선비, 즉 양반들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반들은 세계의 한 구석에서 탄생한 존재이므로 선천적으로 한편으로 치우치는 기질을 타고 났다고 했습니다. 발로는 한 번도 중국 땅을 밟아 보지 못했고, 눈으로는 중국 사람을 보지도 못한 채, 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이 나라 영토(조선)을 떠날 기회가 없이 마치 우물 안 개구리나 나뭇가지 하나에만 둥우리를 트는 뱁새에 비유하는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제가의 책 '북학의'나 '북학파'라는 단어에서 이 '북학'이란 단어는 『맹자(孟子)』에 나온 말로, 중국, 당시 청나라를 선진 문명국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북벌론'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시대 풍조로 보아 박제가가 주장한 것처럼 청나라인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혁명적이고 극단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청나라와 사대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를 멸시하는

풍조가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제가는 이러한 시대 풍조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받게 될 박해도 무릅쓰고 구국·구빈(救貧)의 길이 오직 북학밖에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사회에 멸시 받던 서얼 출신이었기에 관직에 진출할 길이 막혀 있었던 배경을 알면 더욱 이해가 갑니다. 그는 지금 현재, 즉 청나라 당시 중국 사람들은 깎은 머리에다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 풍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결과적으로 하, 은, 주 3대 이래 한, 당 송, 명을 거친 중화이며 한, 당, 송, 명의 옛 법과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학의 정당화 논리를 북벌론과 함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학을 통해 힘을 기른 다음에 북벌을 도모하자는, 북벌을 위해서는 북학을 통한 이용후생을 통해 조선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알리고 싶은 바는 진실로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려면, 즉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아무리 오랑캐라 할지라도 진실로 스승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선의 국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나라는 스스로 주나라이며, 이적은 스스로 이적이다. 대저 주나라와 이적은 반드시 분간이 있었다. 이적이 화하를 어지럽게 했다 하여 오래된 주나라마저 배척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청나라가 이미 천하를 차지한 지가 백여 년이 되었으나, 그 지역은 옛날 화하(중국) 사람들의 자녀와 예의가 난 그곳이며, 궁실, 주거, 경종하는 방법과 최, 노, 왕, 사와 같은 사대부의 씨족이 그대로 있다. 그 사람들마저 덮어놓고 이적이라 하고 그 법마저 함께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우면 그 법이 바로 이적한테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이 장차 취할 것이다. 하물며 본래부터의 중국 법이야 말해 무엇하랴. … 지금의 중국 법이 배울 만한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비웃는다. 필부도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는 원수가 차고 있는 예리한 칼을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제 당당한 천승의 나라로서 대의를 천하에 펴고자 하면서도 중국 법을 한 가지도 배우지 않으며 중국 선비를 한 사람도 사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만 괴롭게 했다. 그러나 아무 공도 없었으며 곤궁과 기아에 빠져 스스로 중지했던 것이다. 백 배나 되는 이로움을 버리고 실행하지 않으니 중국의 오랑캐를 물리칠 겨를이 없이 동국의 오랑캐 같은 풍속도 다 변화시키지 못할까 나는 염려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오랑캐를 물리치고자 하면 누가 오랑캐인지를 알아야 하며, 중국을 숭상하려면 그들이 남긴 법을 다 행하는 것이 더욱 숭상하는 것이 된다. 대저 명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이십여 년을 힘써 중국을 배운 뒤에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p. 284)

연암 박지원도 박제가의 논리처럼 청나라의 법과 제도가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백성에게 이롭고 국가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본받아야 하고, 더욱이 지금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는 삼대(하·은·주) 이래 제왕들의 법도와 역대 국가들이 가졌던 옛 것이고 떳떳한 것이므로 이를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가난해도 글 읽기를 좋아해서, 겨울이 되면 수많은 형제들의 코끝에는 항상 고드름이 달릴 지경이니, 이 법을 배워 가서 삼동의 그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 (도강록 中 7월 초5일 신사일)
>
> 대개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인민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이적에게서 나온 것일지라도 이를 거두어서 본받으려거든, 하물며 삼대 이후의 성제(聖帝)·명왕(明王)과 한·당·송·명 등 여러 나라의 고유적(固有的)인 옛것인들 어떨쏘냐. 성인이 《춘추》를 지으실 제 물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쳤으나, 그렇다고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힘을 분히 여겨서 중화의 숭배할 만한 진실 그것마저 물리친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진실로 이적을 물리치려면 중화의 끼친 법을 모조리 배워서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문화를 열어서 밭갈기, 누에치기,

그릇굽기, 풀무불기 등으로부터 공업·상업 등에 이르기까지도 배우지 않음이 없으며, 남이 열을 한다면 우리는 백을 하여 먼저 우리 인민들에게 이롭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초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저들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매질할 수 있도록 한 뒤에야 중국에는 아무런 장관이 없더라고 이를 수 있겠다. (일신수필 中 7월 15일 신묘일)

더 나아가 박지원도 '허생전'을 통해 북벌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하며 동시에 박제가처럼 북벌을 위한 북학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허생은,'이것두 어렵구 저것두 못한다 하니 그러고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쉬운 일 하나 있으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한다. 이공은, '듣고자 원하옵니다.' 했다.
허생은, '대체로 대의(大義)를 온 천하에 외치고자 한다면, 첫째 천하의 호걸을 먼저 사귀어 맺어야 할 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먼저 간첩(間諜)을 쓰지 않고서는 이룩하지 못하는 법이야. 이제 만주(滿洲 청(淸))가 갑자기 천하를 맡아서 제 아직 중국 사람과는 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판 아닌가. 그럴 즈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솔선적(率先的)으로 항복하였은즉 저편에서는 가장 우리를 믿어 줄 만한 사정이 아닌가. 이제 곧 그들에게 청하기를, 우리 자제들을 귀국에

보내어 학문도 배우려니와 벼슬도 하여 옛날 당(唐)·원(元)의 고사(故事)를 본받고, 나아가 장사치들의 출입까지도 금하지 말아 달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친절을 달콤하게 여겨서 환영할 테니 그제야 국내의 자제를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지식층(知識層)은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세민(細民)들은 멀리 강남(江南)에 장사로 스며들어 그들의 모든 허실(虛實)을 엿보며, 그들의 호걸(豪傑)을 체결(締結)하고선 그제야 천하의 일을 꾀함직 하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고는 임금을 세우되 주씨(朱氏)를 물색(物色)해도 나서지 않는다면 천하의 제후(諸侯)들을 거느려 사람을 하늘에 추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잘되면 대국(大國)의 스승 노릇을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백구(伯舅)의 나라는 무난할 게 아냐.' 한다.

이공은 무연(憮然)히, '요즘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들 삼가 예법(禮法)을 지키는 판이어서 누가 과감하게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겠습니까.' 했다.

허생은 목소리를 높여, '이놈, 소위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彝)·맥(貊)의 땅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사대부라고 뽐내니 어찌 앙큼하지 않느냐. 바지나 저고리를 온통 희게만 하니 이는 실로 상인(喪人)의 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데 묶어서 송곳같이 찌는 것은 곧 남만(南蠻)의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니, 무엇이 예법(禮法)이니 아니니 하고 뽐낼 게 있으랴. 옛날

번오기(樊於期)는 사사로운 원망을 갚기 위하여 머리 잘리기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호복(胡服) 입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거늘, 이제 너희들은 대명(大明)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면서 오히려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끼며, 또 앞으로 장차 말달리기 · 칼치기 · 창찌르기 · 활 튀기기 · 돌팔매 던지기 등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서 제 딴은 이게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세 가지의 꾀를 가르쳤으되, 너는 그 중 한 가지도 하지 못하면서 네 딴에 신임받는 신하라 하니, 소위 신임 받는 신하가 겨우 이렇단 말이냐. 이런 놈은 베어 버려야 하겠군.' 하고는,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 (옥갑야화)

또다른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대용이 지은 자연관 및 과학사상서인 '의산문답'에서도 북학파 학자들의 이용후생(상업)의 강조와 중국(명나라) 중심의 천하사상으로부터의 탈피와 관련된 중국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是以古人之澤民御世, 未嘗不資法於物。君臣之儀, 盖取諸蜂, 兵陣之法, 盖取諸蟻, 禮節之制, 盖取諸拱鼠, 網罟之設, 盖取諸蜘蛛, 故曰聖人師萬物。今爾曷不以天視物, 而猶以人視物也?

이런 까닭에 옛사람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제로 만물에서 배워 본받았다. 임금과 신하의 예의는 대개 벌들에게서 취했고, 군대의 진법은 대체로 개미들에게서 취했으며, 예절의 법도는 다람쥐에게서 취하고, 그물을 치는 것은 거미에게서 취했다. 그래서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어찌 하늘의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가? (p. 38)

… 너희들은 이(理)를 말하며 성(性)을 논하면서 툭하면 하늘을 일컬으나, 하늘이 명(命)한 바로써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 다 한가지 동물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인(仁)으로써 논한다면 범과 메뚜기 · 누에 · 벌 · 개미와 사람이 모두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요, 또 그 선악으로써 따진다면 뻔뻔스레 벌과 개미의 집을 노략질하고 긁어 가는 놈이야말로 천하의 큰 도(盜)가 아니며,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놈이야말로 인의(仁義)의 큰 적(賊)이 아니겠는가. … 이제 이 글을 읽어 본즉, 말이 많이들 이치에 어긋나서 저 거협(胠篋) · 도척(盜跖)과 뜻이 같다. 그러나 온 천하의 뜻있는 선비가 어찌 하룬들 중국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청(淸)이 천하의 주인이 된 지 겨우 네 대째건마는 그들은 모두 문무가 겸전하고 수고(壽考)를 길이 누렸으며, 승평을 노래한 지 백 년 동안에 온 누리가 고요하니,

이는 한(漢)·당(唐) 때에도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처럼 편안히 터를 닦고 모든 건설하는 뜻을 볼 때에 이 또한 하느님의 배치(配置)한 명리(命吏 제왕을 일컬음)가 아닐 수 없겠다.

… 이제 나는 감히 묻노니, "하느님께선 모든 실천과 사실로써 그의 의사를 표시하실진대, 저 오랑캐의 제도로써 중국의 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천하의 커다란 모욕인만큼 저 인민들의 원통함이 그 어떠하며, 향기로운 제물과 비린내 나는 제물은 각기 그들의 닦은 덕(德)에 따라 다른 것이니, 백신(百神)은 그 어떤 냄새를 응감할 것인가.요컨대, 사람으로서 보면 중화(中華)와 이적의 구별이 뚜렷하겠지마는 하늘로서 본다면 은(殷)의 우관(冔冠)이나 주(周)의 면류(冕旒)도 제각기 때를 따라 변하였거니, 어찌 반드시 청인(淸人)들의 홍모(紅帽)만을 의심하리오 (관내정사 中 호질)

… 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말·닭·개 같은 것에나 맞는 이치다. 하늘이 이를 준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무엇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서 입을 땅에 닿으려고 하면 이가 먼저 땅에 걸리니 물건을 씹는 데도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는가." … 대체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에 있어 모를 것이 이 같거늘,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복잡함에랴.

>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따서 지은 것도 이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산장잡기 中 상기)

유학에서는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처지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연암의 '호질'이 북벌론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보다 근본적 시각에서 인간 중심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장잡기의 '상기'에서도 하늘을 인격적 창조주로 보고 매사를 이로 해석하려는 경직된 주자학적 사유 체계를 비판하고, 개방적 사유로 만물의 무궁한 변화를 탐구해야 한다는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간 중심의 문명론 해체는 중국(명나라) 중심의 천하관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나가며

〈남도번회도〉의 청나라는 18세기 건륭이 통치하며 광대한 영토의 확장과 인구의 팽창을 경험하며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세력범위와 민족으로 구성된 자신의 영토를 독특한 청조의

통치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전 왕조인 명으로부터 중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본 틀을 빌려오면서도 만주족만의 통치방식도 이용하여 정복자 엘리트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교육받은 한족의 지식층을 통치계급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만주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과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선은 〈태평성시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북벌과 북학의 대립이 팽팽한 상태였습니다. 청 이전 왕조인 명에 대한 유교적 명분의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론과 청(만주족)의 발전된 문명을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북학파의 대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제가의 북학의, 홍대용의 의산문답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북학파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명나라 중심의 중국관을 거부합니다. 신분적으로 양반가 자제였던 홍대용과 박지원은 유학에서의 인간 중심적 사상을 거부합니다. 서얼 출신이었던 박제가와 박지원은 청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 조선의 미래를 위해 배울 점은 배우자라는 태도와 기존 양반의 행태와 그들이 주장하는 북벌론의 모순을 다소 신랄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상업과 관련된 이용후생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나라 통치방식에서의 한족(명)과 만주족(청)요소의 공존과 조선에서의 북벌론(명)과 북학파(청)의 대립은 같은 시기 다른 공간에서 명나라의 요소와 청나라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비슷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청의 〈남도번회도〉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태평성시도〉로 이어지는 '상업'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문명 표준의 전파를 고찰하는 작업은 쑤저우를 통한 유럽 미적양식의 전파과정을 살펴보며 18세기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의 중심국이었던 중국과 그 옆에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의 나름 비슷했던 국제정치의 흐름을 초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Cheng-hua Wang. "WHITHER ART HISTORY? A Global Perspective on Eighteenth-Century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The Art Bulletin (New York, N.Y.) 96.4 (2014): 379-94

Chou, Ju-hsi., Claudia. Brown, and Phoenix Art Museum. The Elegant Brush : 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1985)

Elliott, Mark C. Emperor Qianlong :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

Mark C. Elliott. (2009). Print. / Elliott, and 양휘웅. 건륭제 :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 마크 C. 엘리엇 지음 ; 양휘웅 옮김 (2011)

Elliott, 이훈., 김선민., 이훈, and 김선민. 만주족의 청제국 / 마크 C. 엘리엇 지음 ; 이훈, 김선민 [공]옮김. (2009)

Ge, and 김효민.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 '중국'과 '주변'개념의 재인식 = Inside and outside of Historical China : A Re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China" and Its "Borders" / 거자오광 지음 ; 김효민 [외] 옮김 (2019)

Hostetler, Laura. Qing Colonial Enterprise :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arly Modern China / Laura Hostetler. (2001)

James L. Hevia. Cherishing Men from Afar: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John K. Fairbank,ed.,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Millward, and Millward, James A. New Qing Imperial History :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 Edited by James Millward ... [et Al.]. (2004)

Peter I. Yun,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SEO YOONJUNG, A New Way of Seeing: Commercial Paintings and

Prints from China and European Painting Techniques in Late Chosŏn Court Painting

Sixiang Wang,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ŏ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5)

거자오광. 이연승 옮김. 2019. “이역을 상상하다 조선 연행 사절단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그물

권정은. 조선후기 시와 그림에 나타난 성시 풍경의 양상 비교

박제가, and 이익성. 북학의 / 지은이: 박제가 ; 이익성 옮김 (2011)

박지원, 『열하일기』, 한국고전종합DB

박지원, and 김혈조. 열하일기 / 박지원 지음 ; 김혈조 옮김 (2009)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속의 서양화법 / 李成美 지음. (2000)

이수미. 〈태평성시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

전지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연구: 등시로 표현된 태평성대

하영선. 이헌미 편 『사행의 국제정치』 (서울: 고려대 아연출판부, 2016)

홍대용, 김태준, and 김효민. 의산문답 / 홍대용 지음 ; 김태준, 김효민 옮김 (2011)

安祥馥, 4종의 繪畵로 살핀 16-17세기 中日 도시축제의 양상

3장

흠천감에서 만난 서양과 조선
_흠천감

현혜림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베이징 남동쪽에 위치한 흠천감은 천문현상을 측정하고 중요한 날을 가려내기 위해 설치된 천문대입니다. 중국은 천자를 중심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읽어내는 것은 황제의 정통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이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흠천감을 차지한 인물들은 바로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 서양의 기독교 정신은 중국의 전통사상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황실에서 선교사들을 천문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매우 정교한 천문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중국의 전통을 위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황실의 주요 행사에 정확한 날을 고르는 것이 당시 중국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청나라는 수학에 뛰어난 예수회 선교사들을 흠천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흠천감장 중 한 명인 할러스타인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저명한 학자이자 독실한 신도였던 그는 서양의 기독교와 천문학을 중국에 가져와 동서양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고향인 슬로베니아가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변동기를 거치며 슬로베니아의 역사 연구를 시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서양 세력에 대한 굴욕감으로 중국 역사에서 서양인의 영향력을 지우고자 하는 중국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러스타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할러스타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조금씩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도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이 「유포문답」에 흠천감장 유송령과의 대담을 기록했는데, 슬로베니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유송령이 할러스타인과 동일인임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대용과 할러스타인과의 만남은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할러스타인이 홍대용과의 만남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글에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점은, 홍대용이 그를 만나기 불과 6년 전 동일하게 흠천감을 찾아간 이의용에게는 할러스타인이 많은 관심과 환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간 흠천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서양 사람으로서 중국에 있었던 할러스타인은 흠천감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조선은 어떠했을까요?

명청시대의 천문대, 흠천감

흠천감은 1442년 명나라 정통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흠천감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천문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황제는 천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국 통치이념에서 천문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명나라 이전부터 천문대를 꾸준히 갖고 있었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천문대가 수도 남서쪽에 있었으나 원나라가 세워지고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베이징 남동쪽에 관상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관상대에서 뛰어난 천문학자이자 공학자인 곽수경이 중국의 천문학을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후 1267년 페르시아 천문학자이자 공학자인 자말 압딘(Jamal ab-Din Buukhari)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천문학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368년 원나라가 몰락하고 관상대의 기구들은 명나라

수도인 난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영락제 시기 수도가 다시 베이징으로 옮겨지면서 베이징의 천문대에서 사용될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정통제에 이르러 새로운 천문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통제는 관상대가 있던 자리에 새로이 흠천감을 짓고 난징으로 옮겨진 기구들의 복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흠천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명말청초, 예수회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입니다. 예수회는 지역의 문화에 순응하며 포교활동을 하는 적응주의' 기치를 들고와 청나라 황실을 위해 일을 하며 흠천감장의 자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이 때 아담 샬 폰 벨, 페르비스트, 이그나츠 코글러, 할러스타인, 안톤 등에 의해 더욱 정교한 천문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1674년 흠천감에 있는 기구들을 보면, 활과 화살처럼 생긴 육분의와 사분의, 용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일식 혼천의, 1.9m에 달하는 천구의, 용의 등에 올려져 있는 적도식 혼천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된 몇 개의 기구들까지 더하면 당시 흠천감이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 기구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흠천감은 수난을 겪게 되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군대가 천문대의 기구들을 자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기구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흠천감은 중화민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중앙 천문대(Central Observatory)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며 예수회가 만든 기구들은 대부분 파손되거나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6년 흠천감은 플라네타리움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만든 기구를 고치거나 복제품을 만들어 박물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흠천감의 예수회 선교사들

흠천감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을 개종시키려한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1549년 처음으로 일본에 발을 디디면서 동아시아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달리 독자적인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적응주의'였습니다. 적응주의란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유교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토착민들에게 접근하고, 토착 선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의 언어, 문자, 문서를 통해 포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선교사들은 하층민이 아니라 사회 엘리트들에게 접근하고, 국가적으로는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이었던 중국을 공략하는 노선을 취했고, 이러한 노선을 성공시킨 인물이 바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이마두利瑪竇, 1552~1610)였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여러 문서를 남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특히 황제의 환심을 사는 것이 동아시아 선교의 핵심임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이 서양의 발전정도보다 뒤쳐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양의 과학을 도입시키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마테오 리치는 천문학에 능한 인물을 예수회에 요청했고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이 이후 초대 흠천감장을 맡게 되는 아담 샬 폰 벨(Johann Adam Schall von Bell, 탕약망湯若望, 1591~1666)입니다. 그는 티코 브라헤의 우주관을 황제에게 설명해 신임을 사고 1622년에 흠천감장의 직위를 얻었습니다. 티코 브라헤의 우주관이란 간단히 천동설과 지동설을 절충하여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두고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돌지만 나머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교황청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관측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받아들이기 적합했을 것입니다.

아담 샬은 청나라를 위해 새로운 역법을 바치는 등 여러 직무를 수행했지만 서양의 문화와 사상이 중국의 정통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한 양광선은 「부득이」라는 상소를 통해 그를 탄핵하게 됩니다. 이후 양광선이 흠천감장 자리를 대신했지만 실제 천문운행과 정확히 맞지 않는 회회법을 사용해 황제의 신임을 잃었고 결국 또 다른 예수회 선교사인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남회인南懷仁, 1623~1688)가 다음 흠천감장을 맡게 됩니다. 페르비스트는 역법을 고치고 새로운

기구들을 만드는 등 흠천감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더욱이 강희제에게 천문학 등을 가르치며 그의 신임을 얻고 기독교 포교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됩니다.

이후 흠천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선교사는 이그나츠 코글러(Ignatius Kogler, 대진현戴進賢, 1680~1746)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역시 흠천감장의 자리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그의 말년인 1744년에 강희제는 적도식 혼천의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매우 노쇠하였기 때문에 그를 도우러 왔던 할러스타인이 대부분의 일을 맡았습니다. 코글러가 1746년에 사망하자 할러스타인이 그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할러스타인(Ferdinand Augustin Haller von Hallerstein, 유송령劉松齡, 1703~1774)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냐에서 태어나 1721년 예수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을 경유하여 1738년에 중국 마카오에 도착하고, 그의 뛰어난 수학실력으로 황제의 눈에 들어 당시 흠천감장이었던 이그나츠 코글러를 도우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후, 자리를 이어받게 된 할러스타인은 적도식 혼천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영향은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의 최초로 정확하게 중국의 인구를 계산했을 뿐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등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했고 런던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의 아카데미와도 꾸준히 교류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의 기록은 다양한 학술서적과 그의 형제자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서신이 오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당시 중국의 상황과 그의 심경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예수회 역시 세력이 줄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회는 유럽에서 여러 정치적 곤란을 겪다가 1773년에 마침내 해산하게 되는데, 할러스타인은 바로 그 다음 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의용과 할러스타인

이제 조선과 할러스타인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경을 방문했던 조선 연행사들이 흠천감을 찾아간 기록은 꽤 많습니다. 흠천감과 서양의 천주당은 조선인들에게 흥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분량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서양 건물과 그림에 매료되었는지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북원록』은 할러스타인과의 대담이 길게 나와 있는 연행록 중 하나입니다. 이의봉(1733~1801)은 1760년 부친 이휘중을 따라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청나라를 방문하여 『북원록』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한글본인 『셔원녹』도 같이 남겼습니다. 『북원록』을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로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접하는 그의 진지하고 젊은 열정이 잘 보이는 듯 합니다.

이의봉은 1761년 1월 8일,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천주당으로 달려갑니다. 그 역시 서양식 건물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한 설명은 그가 『직방외기』 등 선교사들이 저술한 서적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이해가 좋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후 27일에 다시 서천주당으로 가 드디어 할러스타인을 만납니다. 할러스타인은 그를 '둥근 계란떡'과 같은 맛있는 다과로 맞이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천문대의 여러 기구들과, 이를 통해 태양을 보여주고, 오르간 연주를 들려주는 등 흠천감을 구경시켜줍니다.

이 다음 여러 차례 다시 찾아갔을 때에도 할러스타인은 이의봉과 친근한 대화를 나눕니다. 천문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양과 서양의 풍습 등을 나누며 할러스타인은 그에게 "대인께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여러 차례 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의 이런 호감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57년 그가 남동생 Weichard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조선 사람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 조선인은 매년 오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조선인은 맑은 날에 일본의 산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일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사실 그들은 천하에 그들이 가장 교활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지 않는 것에 더 가깝다. 그들은 만나는 시간 내내

질문을 하지만 답변은 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방문할 때, 그리고 북경에 오자마자 방문할 때, 그들은 잉크와 서예도구를 요구한다. 그들 중에 중국어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필담을 이용한다. 우리는 하인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천문학에 대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한다. 만약 그들에게 질문들을 남기면 답변해줄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절대 하나의 글자도 남기지 않고 보통 가져가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강하고, 건장하며, 튼튼한 좋은 군인들이다. 그들은 옛 중국인의 복식을 하는데, 지금은 평화의 복식을 하고, 지금은 전쟁의 예복을 입는다. 그들은 절대 굴복시킬 수 없지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수도 없다.

이 편지에 나타난 조선인의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수회의 중국 선교의 목적이 일본이었음을 생각하면, 조선은 일본과 가까운 나라로서 흥미가 있지만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가장 교활하”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봉이 할러스타인의 환심을 산 것을 보면, 이는 국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의봉의 개인적인 인품과 매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의봉은 할러스타인과의 대담에서 할러스타인의 묻는 바에 충실히 대답합니다.

귀국에서도 배를 타고 중국에 이르는 것입니까?"

"단지 압록강 한 줄기가 있는데 조그만 거룻배로도 건널 수 있습니다. 서양은 해로로 몇 리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략 오륙만 리 됩니다. 압록강은 바다로 나가는 입구에 있습니까?"

"백두산 꼭대기에서 발원합니다."

"사방이 대부분 바다일 텐데,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수로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두르고 있는 것은 모두 바다입니다. 의주로부터 북경에 이르는 길만이 왼편으로 발해를 끼고 곧장 육지로 오게 되어 있는데, 오직 옷의 띠처럼 좁은 강 한 줄기가 있을 뿐입니다."

할러스타인이 조선의 지리에 대해 묻는 것을 보면 그가 조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그의 질문을 생각해봅시다. 1750년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는 역대 황제들이 예수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순치제와 강희제에 대한 평가는 친과학, 친예수회로 내리고 있습니다. 페르비스트가 강희제에게 얻었던 신임을 보면 이 군주들이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선교사들에게도 얼마나 호의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옹정제에서는 이 태도가 변합니다. 그는 서양의 발달한 천문학은 인정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전에 비해 신앙적 열정을 억눌러야 했다고 할러스타인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륭제에 이르러서는 이 반기독교적 태도가 더욱 강화되고 과학에 대한 존중마저도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러스타인은 건륭제가 선교사들을 오로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 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할러스타인에게 점차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선교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52년 포르투갈 왕실에서 보낸 대표단을 할러스타인이 직접 맞이하면서 그의 입지가 다져집니다. 포르투갈은 직접 할러스타인을 통해 황제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할러스타인은 이들을 적절하게 대접함으로써 황제를 만족시켰습니다. 황제가 포르투갈 대표단에게 유례 없이 호화로운 접대를 하고 많은 선물을 한 것은 그가 서양 왕실과의 접촉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으로 건륭제는 이듬해 1753년부터 1757년까지 주변을 토벌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준가르 족을 토벌하고 러시아와의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시베리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등 중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새로 정벌한 지역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그는 선교사 Felix de Rocha와 Jose d'Espinha를 데리고 갔습

니다. 그들이 측지술을 사용하지 않고 지도를 만들어 바쳤음에도 황제가 만족했다고 할러스타인은 쓰고 있는데, 여기서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이 건륭제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뿐더러 과학을 모른다는 무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인식은 변방의 나라이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나라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766년에 홍대용이 할러스타인을 찾아가 나눈 대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대마도와 부산이 조선의 어느 현에 있으며, 근년에 왜국 사람과 서로 통합니까?"
> "일본에도 또한 자명종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할러스타인의 관심이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마도와 부산은 일본의 무역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또 일본의 자명종은 일본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올라왔고 또 서양과 어느 정도로 교류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할러스타인의 이런 질문은 중국에서의 선교가 힘들어지고 있고, 또 예수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일본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에 한 발짝 늦은 조선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

운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대용은 할러스타인의 냉대를 받았지만 이것은 그의 잘못으로 보기만은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며

할러스타인과 홍대용의 만남은 이미 몇 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1750년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761년의 이의봉과 할러스타인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둘의 짧지만 깊었던 교감은 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서학과 서교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있는 이의봉은 그와의 대담에서 더 발전된 서양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할러스타인 역시 비록 조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의 동서남북으로의 확장 속에서도 정복되지 않지만 사대를 다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조선은 중국을 통해서 서양을 보았고, 서양은 중국을 통해서 조선을 본 셈입니다.

참고문헌

홍대용.『홍대용 담헌서』,「유포문답」
이의봉.『북원록』

김혜경. 2012.『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역사와 의미』, 서강대학교 출판부.

노용필. 2006, '조선인 洪大容과 서양인 천주교신부의 상호 인식 －劉鮑問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0(27), pp.67-99,

Mitja Sage. 2009. "A.Hallersetin – Liu Songling: The Multicultural Legacy of Jesuit Wisdom and Piety at the Qing Dynasty Court". Association for Culture and Education KIBLA

Minho Kim. 2020. 'ONE FROM THE EAST, ONE FROM THE WEST: THE UNEASY ENCOUNTERS BETWEEN HONG TAE-YONG AND AUGUSTIN HALLERSTEIN IN MID-EIGHTEENTH CENTURY BEIJING', *Acta Koreana*, 20(2). pp. 501-528

4장

그들은 불타는 원명원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_원명원

정호승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팔리교 전투

1860년 9월 21일, 지금의 북경 통주 서쪽에 위치한 팔리교(八里橋, Palikao or Eight-mile bridge)에서 다수의 만주 및 몽골 팔기 기병이 소속된 청군은 영프연합군과 대규모 회전을 시도했다. 청군을 지휘하는 것은 제 2차 대구포대 전투를 승리를 경험했던 승격림심(Sengge Rinchen)이었고, 영프 연합군은 명확한 지휘권의 통일은 없었지만 프랑스군은 몽토방이, 영국군은 엘긴이 이끌었다. 청군의 병력규모는 3만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몽골 팔기 소속의 기병이 1만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영프연합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각각 4천 규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투의

주공을 맡은 것은 프랑스군이었기 때문에 총지휘는 임의로 몽토방이 담당하였다.(de Saint-Amand, 1912)

이와 같은 전력의 차이는 전근대 시기의 군대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전투 이전에 승리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전근대 군대이든, 심지어 선형전술을 확립시키고 화약으로 무장한 근대적 유럽군대이든 간에 전투에 있어서 기병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회전 전술의 정석임과 동시에 완성인 망치와 모루(Hammer and Anvil)[2] 전술 속에서는 기병이야말로 전투의 판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모루를 맡은 보병들이 서로 대치하거나 전투를 벌일 동안, 양익에서의 전투와 우회기동 그리고 배후에서의 돌격을 담당하여 전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병 전력에서 청군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청나라군과 영프연합군이 동일한 수준의 군대였다면 이 전투의 결과가 청군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실제로 팔리교 전투의 결과는 매우 일방적인 것이었다.

---

[2] 망치와 모루는 서양 전술사 속에서 확립된 회전 전술의 하나로서, 상대의 시선과 전력을 전선의 정면에 묶어두는 모루에 해당하는 부대와 상대를 우회 또는 그와 유사한 기동을 통해 적의 측면 또는 배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망치에 해당하는 부대의 2 개의 집단군을 통해 성립되는 방어와 기동 전술을 의미한다.(Gat, Azar. *War In Human Civili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40)

문제는 그것이 영프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였다는 점일 것이다. 최소 1200명 이상의 청군이 전장에서 쓰러질 동안 영프연합군에서는 영국군에서 2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가, 프랑스군에서 3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나왔을 뿐이었다.(de Saint-Amand, 1912) 어떻게 이와 같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는 무기의 수준 차이와 같은 물리적 기술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술(Art of War)이라는 수준에서 유럽 강대국들의 군대와 전술이 이미 청군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근대적 군대[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프연합군측의 주공이었던 프랑스군 측의 총지휘관 몽토방은 청군의 기병이 영프연합군이 포격을 뚫고 정면으로 돌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전투에 참여했던 영국군 장교들의 증언 역시 청군의 기병이 혼란을 틈타 우발적인 돌격을 감행했다고 말하고 있다.(Wolseley 1862, p.189)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투에서 청군의 기병은 서구의 명장들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일궈낸 망치와 모루 전술에 의거한 우회 기동이 아니라 보병과의 공조가 부재한 정면 돌격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청군의 중핵을

[3] 물론 다수의 청군도 조총이나 수입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무장상태와 이를 활용하는 전술적 활용 방안이 유럽 군대와는 달리 균일하지도 않았거니와 이를 통해 전술적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전근대적 군대라 지칭한다.

담당하고 있던 기병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청군 보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녹영군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현실적 사안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시에 청군의 2만에 달하는 보병이 반수 이하의 영프연합군을 상대로 모루를 형성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취약성과 기술 및 전술의 차이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유리함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영프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팔리교 전투의 결과는 영프연합군으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의 전쟁의 기술이 동양의 중심이자 최강국이었던 청 제국을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었다. 팔리교 전투는 청군의 주력 팔기군이 소속된 정규군과 서양 군대 사이에 벌어진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회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영프연합군이 상징하는 서양 세력의 물리적 힘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었다. 팔리교 전투의 결과를 전해 듣고 함풍제는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를 대신해서 북경에 남은 공친왕은 후술할 사절 억류와 살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영프연합군의 화를 잠재우고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원명원과 영프연합군 그리고 엘긴

원명원은 1707년 강희제 통치 후반기에 친왕 옹(후의 옹정제)을 위해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옹정제와 건륭제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확장을 거듭한 끝에 현재까지 알려진 파괴되기 이전의 원명원으로서 완성되었다.(Barme, 1996) 원명원의 건축에는 예수회 선교사로서 청에 파견되어 있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와 미셸 베노이 또한 참여하였으며, 흔적으로나마 넓리 알려진 서구식 정원과 분수가 그들에 의한 작품이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과 동양 문화의 합작품으로서 태어난 원명원에게 닥친 불행은 그 위치가 팔리교 전투 이후 북경을 향해 진군하던 영프연합군의 진로상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팔리교 전투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북경 인근의 청군 대부분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프연합군은 곧바로 북경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영프연합군의 진로가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승격림심 휘하의 청군의 산발적인 저항과 동맹의 한 축인 프랑스군의 진군속도 지연까지 악재는 계속해서 겹치고 있었다. 영국군 지휘관이었던 엘긴경의 편지에 따르면 10월 3일에 연합군은 오로지 2마일 가량을 진군했을 뿐이었다.

> We have moved about two miles, and are now lodged in a mosque—a nice building, a good deal ornamented—which is for the nonce turned to profane uses. The army was to have advanced to attack Sang-ko-lin-

> sin's force to-morrow, but now I am told the French are not ready. … These delays give the Chinese fresh heart, and they are beginning to send people to fire on our convoys, &c., coming up from Tientsin.(Elgin, 186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긴이 원명원의 소식을 접한 것은 10월 7일 일요일에 이른 뒤였다. 문제는 이 소식을 그가 원명원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선행하고 있던 프랑스군 및 그들과 동행하고 있던 영국군 기병대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점에 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엘긴이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그가 오후에 원명원을 직접 보기 위해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차적인 약탈이 이루어진 뒤였던 것으로 보인다.

> We hear this morning that the French and our cavalry have captured the Summer Palace of the Emperor. All the big-wigs have fled, nothing remains but a portion of the household. We are told that the prisoners are all in Pekin. … Five P.M.—I have just returned from the Summer Palace. It is really a fine thing, like an English park—numberless buildings with handsome rooms, and filled with Chinese curios, and handsome clocks, bronzes, &c. But, alas! such a scene of desolation.(Elgin, 1860)

편지에서 엘긴이 원명원을 본 감상은 하찮은 것을 대하는 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원명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그 정원에 대해 남은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와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 엘긴은 원명원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미 청조의 주요인사들이 대부분 도망가고 건물들 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에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오후에 이를 직접 보고 돌아와서는 원명원이 마치 '중국풍의 장식물들로 꾸며진 영국식 정원'과도 같다는 감상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명원의 인상적인 정원에 대한 기록은 엘긴 뿐만 아니라 당시 원명원을 방문했던 다른 영국군 장교들 또한 남기고 있다.(Wolseley 1862, M.Ghee 1862)하지만 동시에 그는 궁전을 관리해야 할 인원들이 대부분 도망치는 바람에 방치된 데 더해서 이미 프랑스군에 의해 상당 부분이 약탈당하는 바람에 황폐화된 궁전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4] 이러한 안타까운 감정은 편지의 말미에 더 잘 드러나고 있다.

> Plundering and devastating a place like this is bad enough, but what is much worse is the waste and breakage. Out of 1,000,000 l. worth of

[4] 편지의 다른 부분에서 엘긴은 약탈을 막고 있었으며 이는 전리품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기 위함이었다는 프랑스 장군의 말과 그의 자군에 대한 통제력을 매우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 property, I daresay 50,000 l. will not be realised. French soldiers were destroying in every way the most beautiful silks, breaking the jade ornaments and porcelain, &c. War is a hateful business. The more one sees of it, the more one detests it.(Elgin, 1860)

이렇듯, 엘긴의 원명원에 대한 감상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처한 환경에 대한 탄식이면 탄식이었지, 원명원에 대한 비하나 파괴의 의도를 처음부터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원명원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원명원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영프연합군과 청 제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다. 엘긴이 남긴 기록 상으로 그는 10월 9일에서 10월 12일 사이에야 청 제국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갔던 파크스(Harry S. Parkes) 일행의 운명과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평화 교섭을 위해 파견되었던 이 사절들은 청 황실의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투옥당한 채 가혹한 환경 속에 놓여있었으며, 몇몇 사절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당한 이들도 있었다.

엘긴은 사절단에 닥친 이와 같은 불행한 운명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매우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도망친 중국 황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명원 파괴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즉 엘긴의

원명원에 대한 인식과 그의 원명원 파괴에 대한 결정의 시간순서를 명확히 할 경우, 그의 원명원 파괴가 결코 그가 원명원을 별볼일 없는 장소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눈여겨봐야할 점은 엘긴이 원명원 파괴를 황제 개인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 As almost all the valuables had already been taken from the palace, the army would go there, not to pillage, but to mark, by a solemn act of retribution, the horror and indignation with which we were inspired by the perpetration of a great crime. The punishment was one which would fall, not on the people, who may be comparatively innocent, but exclusively on the Emperor, whose direct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committed is established, not only by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at Yuen-ming-yuen, but also by the edict, in which he offered a pecuniary reward for the heads of the foreigners, adding, that he was ready to expend all his treasure in these wages of assassination.(Elgin, 186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엘긴의 원명원에 대한 인식은 이를 청 황제의 개인적 사유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는 원명원 파괴를 'solemn act of retribution'이라고 매우 단정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엘긴에게 있어서 원명원은 비록 그에게 고향의 정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동시에 북경 시내에 진입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조한 이상 그에게 황제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나마 가장 덜 불쾌한 수단은 원명원 파괴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Barme Geremie는 원명원 파괴 당시 엘긴이 처한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일컬으며 엘긴의 이러한 결정이 그가 중국의 비교적 무고한 인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황제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었다고 서술한다. 바로 위의 엘긴 개인의 기록을 보아도 엘긴의 원명원 파괴에 대한 인식이 추가적인 인명 피해 없이 황제의 사적인 보물을 파괴한다는 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는 개인적으로는 원명원의 파괴를 원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뒤에 남기고 있다. 이듬해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왕립 아카데미 만찬회에서 남긴 발언에서 그는 자신이 원명원에서 행한 파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황제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벌을 내릴 수단이 원명원의 파괴 외에는 없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 I hope that I may be allowed to take one step more in the same direction, and to assure you that no one regretted more sincerely than I did the destruction of that collection of summer-houses…… But when

> I had satisfied myself that in no other way, except, indeed, by inflicting on this country and on China the calamity of another year of war…… I felt that the time had come when I must choose between the indulgence of a not unnatural sensibility and the performance of a painful duty.(Elgin, 1861)

또 누가 보았는가

원명원 파괴 당시 현장에 있던 유럽측 인사들 중 기록을 남긴 이는 엘긴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그러한 인사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후대에 'General Gordon' 혹은 'Chinese Gordon'이라고도 불리는 찰스 조지 고든(Charles George Gordon)일 것이다. 그는 제 2차 아편전쟁에서 영프연합군의 원정 당시 영국군 왕립 공병대 소속의 대위로 임관하고 있었다. 그의 기록 속에서도 영국군이 9월에 대규모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까지도 영국군이 북경 시내에 대한 직접적인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동시에 영국군의 원명원 방화 사건이 단순히 북경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 혹은 약탈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을 그는 남기고 있다.

> On the 11th October we were sent down in a great hurry to throw up

> works and batteries against the town, as the Chinese refused to give up the gate we required them to surrender before we would treat with them…… the Chinese were given until twelve on the 13th to give up the gate. We made a lot of batteries, and everything was ready for the assault of the wall, which is battlemented, and forty feet high, but of inferior masonry.(Hake 1884, p.31)

이러한 고든의 기록은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자세한 군사적 배치 상황을 남기지 못했던 엘긴의 기록을 보충해 준다. 영국군이 북경 외곽에서 시내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만한 포병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팔리교에서의 패배 이후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을지언정 대규모 야전군을 편성해서 영프연합군에게 도전할 여력이 북경의 청 제국정부에게는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영국군이 북경에 대한 직접적인 약탈 시도를 할 경우 청군은 이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경 약탈이라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엘긴이 북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에 원명원을 파괴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고든은 원명원의 아름다움과 그 파괴에 대한 직접적인 감상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동시에 고든의 기록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영국군에 의한 약탈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엘긴과는 달리 원명원에 대한 극심한 약탈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 The General ordered it to be destroyed, and stuck up proclamations to say why it was ordered. We accordingly went out, and, after pillaging it, burned the whole place, destroying in a Vandal-like manner most valuable property, which could no be replaced for four millions.(Hake 1884, p.33)

물론 고든 역시 약탈의 주범이 프랑스군이었다는 점을 빼먹지 않고 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엘긴과 동일하다. 또한 고든은 엘긴에 비해서도 원명원 방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든이 원명원의 찬란함에 대해 느낀 감상평의 수준과 동시에 놓고 볼 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You would scarcely conceive the magnificence of this residence, or the tremendous devastation the French have committed. The throne and room were lined with ebony, carved in a marvellous way…… as much splendour and civilization as you would see at Windsor.(Hake 1884, p.33)

고든의 이러한 원명원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는 동시에 이를 파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자기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그가 남긴 기록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 You can scarcely imagine the beauty and magnificence of the places we burnt. It made one's heart sore to burn them; in fact, these palaces were so large, and we were so pressed for time…… It was wretchedly demoralizing work for an army.(Hake 1884, p.33)

이와 같은 고든의 태도는 일견 매우 고상한 것으로도 비치는 동시에, 그가 원명원과 그 파괴를 엘긴과는 달리 예술이나 문명의 파괴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고든 또한 사절단이 처한 운명에 대해 매우 큰 슬픔을 드러냈으며, 그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엘긴과 고든의 인식 차이는 결국 양자가 당시 군대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개인적 경험 양자 모두가 적용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다만 고든이 원명원 파괴 당시를 기록하면서 사용한 'Demoralizing'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긴과 고든의 인식은 물론 그들의 개인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두 인물 모두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지식인임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인물이거나 혹은 나중에 그럴 필요가 있는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고든이 사용하고 있는 Demoralizing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원명원 파괴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사기를 꺾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실제로 고든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석하더라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용법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고든이 원명원의 파괴를 일종의 정신적으로 불쾌한, 또는 하등한 행위였다고 인식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굳이 이러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전자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고든이 인식하는 사기의 꺾인 군대에 대한 서술과 실제 당시 영국군의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90 경보병 연대 소속이었던 가넷 조셉 울슬리(Garnett Joseph Wolseley) 중령은 원명원 파괴 당시를 전쟁 직후에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It was the stamp which gave an unmistakeable reality to our work of vengeance, proving that Lord Elgin's last letter was no idle threat, and warning them of what they might expect in the capital itself, unless

> they accepted our proffered terms. The Imperial palace within the city still remained untouched, and if they wished to save that last remaining palace for their master, it behoved them to lose no time. I feel convinced that the burning of Yuen-ming-yuen considerably hastened the final settlement of affairs, and strengthened our ambassador's position.(Wolseley 1862, p.279)

이와 같은 인식은 엘긴의 인식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같은 방향성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슬리에 의하면 당시 영국군은 사절단의 인질화 및 살해 사건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으며, 원명원 파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영국군이 가지는 우위를 각인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명원 파괴 이전에 이미 원명원에서 얻은 약탈품들을 옥션을 통해 분배함으로서 병사들과 장교들 역시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5] 이러한 모습은 고든이 말하는 일반적인 영국군의 사기 저하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명원 방화 자체는 영국군이 자국 사절에게 닥친 비극에 대한 복수이며 동시에 다시금 사기를 재충전하는 행위였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물론 프랑스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전리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했지만 말이다.

또한 올슬리는 원명원 방화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 Our allies, who had looted all and destroyed some of the buildings of that place, objected to our putting the coup de grace to their work. It was averred that the complete destruction of the palaces would be a Gothlike act of barbarism. It seems strange that this idea did not occur to the generally quick perceptions of our Gallic allies before they had shorn the place of all its beauty and ornament, by the removal or reckless destruction of everything that was valuable within its precincts, leaving us, indeed, little more than the bare shell of the buildings on which to wreak our vengeance for the cruelties practised therein upon our ill-fated countrymen.(Wolseley 1862, pp.279-280)

여기서 올슬리는 원명원 방화가 프랑스군이 이미 원명원에 행한 대규모 약탈 행위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나 그가 프랑스군이 영국군의 행위를 Gothlike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Gallic allies라고 부르는 부분은 위트마저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올슬리가 프랑스군의 약탈행위와 자신들의 방화 행위를 동일한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더라도 그것이 영국군의 방화에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영국군이 프랑스군보다 원명원에 일찍 도착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약탈행위를 벌이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경우 영국군이 원명원을 불태우며 주장한 사절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복수와 징벌이라는 구호는 자신들의 약탈 행위를 숨기기 위한 면피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원명원에 입성한 영국군의 기록 중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다. 로버트 제임스 레슬리 맥기(Rober James Leslie M.Ghee)는 북경 인근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위치에 있던 인물인데, 바로 그가 영국군에 소속해 있었지만 정식적 군인 신분이 아닌 종군 목사였다는 점이다. 그는 영국군의 원명원에 입성하는 모습과 불태우는 모습 모두를 지켜보았으며, 올슬리와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기록을 남겼다. 그의 원명원에 대한 기록 속에는 동양과 서양이 합작한 건축물로서의 원명원에 대한 묘사가 매우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 Here were some exquisite boudoirs, fitted up with the perfection of Eastern luxury and taste; and a spiral staircase, the only on in the building, led to a similar suite of apartments overhead, a great part of whose ornament consisted in the most rare and costly of Chinese works of art, with a few, French in manufacture as in design and taste.(M.Ghee 1862, p.209)

물론 그는 원명원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명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서구적 양식의 물건이나 건물들을 대부분 프랑스 양식인지 혹은 영국 선교사가 지난 세기에 놔둔 것인지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명원의 모습이 그가 판단하기에 일반적인 '동양'의 궁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던 것임에는 분명하다. 심지어 그는 원명원의 일부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건축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의 원명원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소개된 목격자들 중에서도 가장 자세한 편에 속하면서도 그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가장 감정적인 묘사와 감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기의 원명원 방화에 대한 감상은 고든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원명원이 가진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슬픔을 기록하는데 상당한 기록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Yes, a good work, I repeat it, though I write it with regret, with sorrow; stern and dire was the need that a blow should be struck which should be felt at the very heart's core of the Government of China, and it was done. It was a sacrifice of all that was most ancient and most beautiful, but it was offered to the manes of the true, the honest, and the valiant, and it as no too costly, oh no! one of such lives was worth it all. It is

gone, but I do not know how to tear myself from it.(M.Ghee 1862, p.289)

이 감정적인 수사로 가득찬 맥기의 한탄은 동시에 그의 원명원 방화 사건과 관련된 독특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의 인식에 따르면 결국 원인은 영국이라는 정의를 무시한 중국 정부의 책임이고, 원명원은 이러한 영국이 세계에서 가지는 책임감과 정의를 무시한 중국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희생 제물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명원 파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태평천국 운동과 같은 시도가 성과를 거둬서[6] 중국 내부에 기독교의 전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빈다는, 비군인인 동시에 목사라는 그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원명원 방화 사건에 대한 감상을 끝마치고 있다.

나가며

제 2차 아편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벌어진 연명원 방화사건은 당시에도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비난받았으며, 그 비난은 현대로 올수록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빅토르

[6] 다만 맥기가 남긴 기록을 보건데 그는 이 'rebel'들에 대한 깊은 이해도나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태평천국이 주장하는 바가 기독교와 유사하다는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고의 영프연합군을 도둑에 빗대는 표현을 통한 비난으로부터 현대에 와서 에릭 링마르가 지칭한 '자유주의자 야만인'이라는 호칭까지 영국군이 원명원에서 자행한 파괴 행위는 야만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Erik 2013)

하지만 본 글에서 보다시피 원명원 방화 사건은 원명원의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사건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계획된 야만적인 약탈과 파괴의 현장도 아니었다. 원명원 방화사건이라는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일으킨 영국군이라는 행위자의 심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영국 원정군에 소속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건 현장을 보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록이 공통적으로 원명원 방화사건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행위자들 중 찰스 조지 고든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원명원 방화 사건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황제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참여자라는 현장 행위자의 심상 속에서 파악해야만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일 것이다. 제 2차 아편전쟁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던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평화교섭을 위해 파견된 사절단을 황제가 잔혹한 방식으로 다룬 데다가 전쟁의 형세가 불리해지자 그들을 석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은 전쟁의 종결을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행위자들의 인식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원명원이란 대상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를 황제의 사유물로서 취급하였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서술한 황제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엮여서 원명원 파괴에 대한 정당성을 영국군이 획득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게다가 빅토르 위고를 위시한 당시로부터 이어지는 원명원 파괴에 대한 비난의 이면에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비판 속에는 유럽 군대가 야만인과 마찬가지인 일을 함으로서 문명인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자조적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는 이면에서는 스스로가 문명인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저열한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부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civilization'과 'barbarian'을 구분하는 시점에서 스스로의 문명적 우월성에 대한 전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명원 방화 사건의 영국군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 영국군 중령 올슬리가 말하는 프랑스군의 약탈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면 통렬한 자기 비판으로 되돌아오는 대목이다. 프랑스군의

약탈 행위와 영국군의 방화 행위가 동일한 맥락에서 반달리즘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명원 방화는 이러한 행위자의 심상 연구를 통해서 포장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현장에서의 1차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 행위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1차적 심상 연구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심상을 통해 사건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우리는 역사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보자. 전쟁의 기술에서의 우위는 소위 문명적 우위 또한 의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원명원 방화와 같은 일대 사건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문헌

Allgood, George (1901), *China War 1860: Letters and Journals*, London, New York[etc.] Longmans, Green, and co.

Barme, Geremie (June 1996).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a Life in Ruins"*. East Asian History 11.

De Saint-Amand, Imbert; Martin, Elizabeth Gilbert (1912). *Napoleon III at the Height of His Pow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Faught, C. Brad (2008). *Gordon Victorian Hero*. Dulles, Potomac.

Gat, Azar(2006). *War In Human Civili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ke, Alfred Egmont (1884). *The Story of Chinese Gordon. vol. 1 (3rd ed.)*. London, England: Remington and Co.

M'Ghee, Robert. (1862). *How we got to Pekin: A Narrative of the Campaign in China of 1860.* London: Richard Bentley.

Ringmar, Erik. (2015). *Liberal Barbarism: The European Destruction of the Palace of the Emperor of Chi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olseley, Garnett Joseph (1862). *Narrative of the war with China in 1860; to which is added the account of a short residence with the Tai-ping rebels at Nanking and a voyage from thence to Hankow (1862)*.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and Roberts.

Project Gutenberg, *Letters and Journals of James, Eighth Earl of Elgin*.

5장

좌옹(佐翁) 윤치호의 청국관 _이화원

이정승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서태후와 이화원, 격변의 19세기

중국은 기원전 11세기 서주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조공·책봉, 기미, 정벌, 회유 등 여러 변환을 거쳐 중화문명 중심의 전통 천하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태후가 권력을 잡았던 19세기에는 1840년 아편전쟁을 시작하여 끊임없는 외세의 압력으로 봉건 질서의 붕괴와 근대 국제질서를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한인 출신 관료들은 리훙장을 필두로 전통의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기 위해 근대 서양의 문물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을 받아들여 양무운동을 전개한다. 실제 당시 청나라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로부터 함대를 구입하여 1888년 북양함대를 창설하는 등 서양 기술을 적극 수용하였다.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양무운동

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금수(禽獸)로 취급했던 서양 국가의 문물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기존 전통 천하 질서를 벗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서태후는 1888년 여름 휴양지로 해군 예산을 유용하여 이화원을 재건하였는데 이것이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화원은 그만큼 단순히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세계유산이 아니라 당대 중국의 전통 천하 질서가 근대 질서와 격돌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 것이다.

19세기 조선의 주류 청국관 - 위정척사와 사대주의

그렇다면 그 당시의 조선에서는 청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수천년 동안 중국 천하 질서 안에서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 중국과 사대교린 관계를 유지해온 한반도는 중국 사대주의와 위정척사가 당시 국제 정치론을 주도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맞이하게 된다. 1866년 프랑스 극동함대가 1866년 8월 병인박해를 계기로 7척의 함선에 15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 정부에 학살 책임자 처벌과 조선·프랑스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을 때 당시 위정척사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동부승지 이항로(李恒老, 1792~1868)는 외적과 화친하지 말고 항전해야 한다고 척사(斥邪)의 상소를 올린다.

> 이제 국론이 交·戰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洋賊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측의 주장이요, 양적과 和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 쪽의 주장입니다. 전자처럼 하면 우리 나라가 옛 풍습인 衣裳之舊를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처럼 하면 인류가 禽獸之域에 빠지고 맙니다.

이항로는 서구 문명은 인류의 문명이 아닌 금수의 문명이며, 프랑스 침략자들과 화친하는 것은 인류를 금수의 지경에 빠뜨리는 것이며, 만약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사람들을 짐승이나 다름없는 지경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이항로는 조선의 문명을 보전하려면 단호히 배척해야 나라안 사람들과 문물제도를 예전과 같이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이항로가 병인양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올린 상소에는 문화와 야만,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화이의식(華夷意識)에 기반을 둔 위정척사론이 피력되어 있으며 서양 문물은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최익현(崔益鉉)은 1876년 1월 23일(음) 궁궐 앞에 엎드려 도끼를 들고 일본과의 개항을 반대하고 청국을 사대할 것을 상소를 올린다.

> . . .청인(淸人)의 뜻은 중국의 황제가 되어 사해(四海)를 다스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중국의 패주(覇主)를 대략

본받아서 인의에 근사(近似)한 것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단지 이적(夷狄)일 뿐이었습니다. 이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도리의 여하는 묻지 않고 만약 소국으로써 대국을 섬길 수만 있다면[以小事大], 피차 호(交好)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요, 설령 저들의 뜻에 미흡한 것이있더라도 관서(寬恕)의 도량이 있어 침학(侵虐)하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적에 이르러선, 한갓 화색(貨色)만을 알고 다시 추호의 인리(人理)도 없으니 이는 단지 금수일 뿐입니다. 사람과 금수가 화호(和好)해서 함께 무리 짓는데도 우려가 없다고 보장한다는 것은, 신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화(和)가 난망(亂亡)을 초래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 상소문에서는 최익현은 왜양일체의 관점에서 적과 화친할 경우 중화를 어지럽히고 삼강이 무너져 만사가 무너지는 환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전(前) 영의정 이유원 (李裕元)은 1879년 11월 청 북양대신 리훙장에게 조선이 중국의 소국으로서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해도 서양 국제법이 소국에는 실효성이 없고 조선에 실익도 없다고 직접 서한을 보낸다.

우리 작전(爵前)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셔서 길함을 좇고 해로움을 피하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우시니 설령 아비와 형이 자식과 동생에 대해서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

> 니까? 하지만 형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뜻을 받들 방도가 없으니, 크게 어리석은 제가 종신토록 깨닫지 못함이 도리어 그럴 법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태서와 일본이 이미 작전(爵前)의 위진(威鎭) 아래서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하니, 소방(小邦)은 영원히 대덕(大德)에 의뢰해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가르침을 받들기만을 밤낮으로 기축(祈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당시 수구적인 지배세력은 척양(斥洋)·척왜(斥倭)하며 청국을 사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반면에 당시 비주류였던 개화파의 청국관, 나아가 19세기 말 젊은 개화파였던 좌 옹(佐翁) 윤치호의 청국관은 어땠을까? 윤치호는 1880년대와 1890년대 초반에 일본·중국·미국에서 최초로 유학하여 근대 학문을 수학한 개화기의 대표적인 근대 지식인이었다. 윤치호는 1880년대 조선 말기부터 1940년대 일제강점기까지 약 60여 년간 한문, 국문, 영어로 작성한 윤치호 일기(尹致昊日記)와 수많은 개인 서한을 통해 당시 본인의 생각을 담은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 이번 답사보고서를 통해 좌옹 윤치호라는 인물에 대해 상세히 관찰하여 척사와 개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격동의 19세기 말 윤치호는 어떻게 청나라를 바라보았는지, 나아가 사랑방 수업에서 배운 시공간을 뛰어넘어 어떤 시대 배경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시각이 형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조선이 개혁하는 데 어떤 꿈을 품었고 좌절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치호의 청국관 - 청소년기 (1865 - 1885)

1881년 좌옹 윤치호는 17세 때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유길준과 함께 도일하여 유길준과 함께 조선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어 이후 일본 최고의 개화사상가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설립한 도쿄 소재 도진샤(同人社)라는 학교에 입학하였다. 어학에 재주를 있었던 윤치호는 1882년에는 요코하마 주재 네덜란드 영사관의 Leon. V. Polder공사에게 영어를 배우며 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영어를 공부한 지 24일 밖에 안된 윤치호는 미국의 Lucius H. Foote초대 주한 공사를 동반하여 귀국해달라는 청을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여 고종과 푸트(Foote) 공사 사이의 통역을 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만 18세밖에 되지 않았다. 윤치호는 당시 청나라에 의존하는 조선의 사대당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고 푸트 공사가 개화의 힘이 되어 주기를 패기와 함께 요청한다.

> 공사는 개화파를 위해 최선의 고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 . 사대당은 재등실이나 소생이 통역함을 꺼리고 청인이 통역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된다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생의 열정어린 청이오니 이것은 내 나라를 위함이고 공사를 위한 말씀입니다."

윤치호는 당시 조선의 빈곤과 낙후가 청나라에 이끌려 다닌 그 수모의 역사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는 1884년 2월 일기에서 조선과 청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지금 우리나라와 청국과의 관계는 5대주 사람들이든, 삼척동자이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과 옛날을 견주어 볼 때 사세가 많이 변하였다. 옛날에는 속방(屬邦)이 되어 그 밑에서 만족히 지내는 것은, 비단 사세가 그렇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 나라를 지키는 한 가지 방책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종주국(宗主國)을 각별히 섬기고 옛 법규를 지키는 것은 비단 일에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게 된다.

윤치호의 청국관 - 상해망명 시절 (1885 - 1888)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윤치호는 정변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김옥균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 이듬해 1885년 1월 19일 중국 상해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다. 상해에서 윤치호는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설립한 The Anglo-Chinese College중서학원(中西學院)에 입학하여 4년간 Young J. Allen 박사와 W. B. Bonnel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던 조선인들의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입각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게 되었으며. 상해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청국의 일상생활을 유심히 지켜본 윤치호는 청국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청국을 특히 불결하고 게으른 나라로 인식했다.

> 이날은 청국의 새해 아침이다… 상하이에 대한 소견. . .길 위에서 마구 오줌을 누어 더러운 냄새가 성안에 가득하다. 남녀노소는 그 등분에 따라 손톱에 장단이 있다. 가령 상등 귀인은 손톱의 길이가 5촌(寸), 그 다음은 2촌 5푼(分), 그 다음은 1촌 5푼이다. 늘 이를 닦지 않는다. 이에 덕지가 두 세촌(寸)이나 두터이 쌓여 있고 색깔은 황금과 같다. 입만 벌리면 더러운 냄새가 개똥과 같은데 다년간 이를 닦지 않는 것으로 귀한 것을 삼는다. . . 밤낮으로 일을 하여 자못 부지런한 듯하지만 그 조루(粗陋)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게으름을 또한 볼 수 있다. 인민들은 허풍떨기를 매우 좋아하고, 부문(浮文)을 크게 숭상하고, 떠들어대기를 좋아한다. 나라의 체면은 돌보지 않고 다만 푼전의 이익만을 찾는다. 음식은 정결하지 못하여 구역질이 나게 한다.

윤치호는 일기에서 종종 불결한 청국을 발전한 일본과 낙후된 조선 사회의 현실에 많이 비교하는데 상하이에서 3년 반을 보낸 후 청국(淸國) 사회에 대한 그의 소감은 '더러운 물로 가득 채워진 연못'이었다. 1884년 7월 22일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나라를 다음과 같이 일본과 비교한다.

> 아뢰기를,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백성의 이익이 주가 되어야 하며, 옛 것만을 지키어 지금의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청국은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일본의 11배나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30년 내외로 경장(更張)·진작(振作)하여 문명과 부강을 사람들이 일컫게 되었고 60년이나 외국과 더불어 통상한 청국보다 100배나 더 낫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청국은 옛 것만을 지켰으나 일본은 능히 옛 것을 고쳐 새 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개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새 것을 쫓고 옛 것을 지키는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해에 도착하고 윤치호는 1885년 여름 익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청국을 더러운 연못, 낡은 집, 그리고 노망 든 늙은이로 비유하며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 1. To Anonymous Person
> Shanghai,
> June 5. 1885.
>
> With your permission, I will express my opinion about China.

It seems to me that this nation is like an old pond full of filthy water. The water might have been fresh and clean, when it was first filled, but it connects with no springs or streams that might feed it with fresh water, and it receives nothing except melted snow and rain; nor has it any drainage or, passage by which to deliver up its old water; so that, as years rolled on, its confined water has become stagnant and filthy, covered with weeds and filled with mire and vermin.

Again, China resembles an old house. No doubt it was well constructed once, but its owner has son neglected his house that the walls have all fallen down, and its timbers are rotten. Some of the tiles on the roof have been stolen off by its neighbours, while others are broken in pieces. So the roof is ready to fall down at the first blow of one of the violent storms that are prevailing in now a days.

Moreover, China is very much like an old foolish man, whose eyes are blind, and whose ears are stopped, so that he can neither see nor hear. But his tongue is perfect and his voice is very loud, indeed, he can make such a big noise that it alarms the neighbouring children.

Having such a great body, and such large limbs, and looking like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 as, indeed, he believes himself to be, he is as proud as can be. Notwithstanding all this, he can not walk even as fast as a four or five years old child. And he is so cowardly and mean, that his neighbours consider him one of the most weak and

contemptible men on the surface of the globe. What is still worse in his character, is that, he is as wicked as he is proud, and injust as he is self-conceited, and is so mean and shameless that he is pleased to have the name of a barbarian as the title of a king.

윤치호의 청국관 - 미국 유학 시절 (1888 - 1893)

윤치호는 4년 동안 중서학원에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배운 영어 덕택에 이젠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 그로서는 더 머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먼저 돌아간 박정양에게 큰 변이 닥치고 있는 것을 본 윤치호는 조선으론 아직 갈 수 없고, 또 일본으로 가면 학비 문제가 있어 알렌 교장과 본넬 교수의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서 윤치호는 1888년 11월 4일 미국 Vanderbilt 대학에서 공부하고 1890년 여름에는 에모리대학으로 가서 1893년 10월까지 공부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과 청국은 알아도 조선을 몰랐기에 조선을 소개한 제1인자였다. 윤치호가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 청국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지만 3번의 일기로 청국관을 기록하였다. 청국관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889년 윤치호가 교회에서 청나라와 일본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혐오감을 넘어서 전교를 위해 청나라를 칭찬했다고 기록한다.

> 일과 여전하다. 건군(Gunn)의 편지 받아 보다. 맥킨토시군의 편지 보다. 밤에 야마구지(山口)군과 모어 메모리오(More Memorio) 교회당에 가 야마구지군은 일본 전교 경황을 연설하고, 나는 청국 전교 사세를 연설한 뒤 일본, 청국의 여러 가지 토산물을 회중에게 구경시키고 12시에 돌아오다. 오늘 저녁 연설은 장로회(Presbyterian Ch) 부인전교회(婦人傳敎會) 회원의 청을 받아 간 것이다. 전교회에 모인 남녀 아이들이 수백인은 되고 노성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내가 청국을 위하여 말한 바가 별로 없었지만 전교하는 일은 하늘에 당한 일이라 어찌 내 사혐(私嫌)으로 청국에 전교하는 일을 언어 동작으로 저희(阻戲)하겠는가? 까닭에 이 연설에서 청인과 청국을 칭찬한 것이다. 꽃 한 바구니 받아 오다. 오늘 로마사기(羅馬史記) 월례 시험 치르다.
> 1889년 3월 25일 (24일, 월, 맑음)

하지만 추후 윤치호의 부정적인 청나라 시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윤치호는 1889년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러시아나 영국 속국이 되어 개화를 배우는 것이 낫다고 국문과 영어로 두 차례 일기로 남긴다.

> 일과 여전하다. 우리나라 시사 의논한 책을 본넬선생이 보냈기에 대강 읽어 보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무신(無信) 무지(無智)한 행실을 자세히 말했으며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취하려는 사정을

다 말하고 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자기 행실을 먼저 잘 닦지 않으면 외면으로 비록 친구의 도움을 입는다 하여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지금 급무는 내정을 잘 닦아 백성의 신명 재산을 보전하여 국가 기본을 견고히 하는 데 있지 외교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군민(君民)은 다만 재물만 탐하여 인민을 도탄에 놓고 조정에 쓸데없는 관원이 수없이 많으며 모든 일에 방향이 없어 다만 조석지계(朝夕之計)에 구구하여 원대한 도리를 쓰지 않는다. 소인 간신이 임금 좌우에 가득하여 나라의 안위 존망은 돌아보지 않고 저의 구복(口腹)만 채우기에 분주하다.

이 같은 정부로 이같이 험한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을 보전하기는 짐짓 꿈밖의 일인 것이다. 이왕 청인의 속국 될 바에야 차라리 러시아나 영국 속국이 되어 그 개화를 배우는 것이 낫겠다. 우리나라 조정 수 백 년 죄악을 생각하면 그같이 더럽고 금수 같은 정부 진작 망하는 것이 도리이며 백만 창생의 복이리라. 종일 마음 편하지 않아 어떻다고 형용하지 못하겠다.

밤에 월례 전교회 시작하다. 오전에 본넬선생에게 편지하다.

1889년 9월 11일(17일, 금, 맑음)

Read some if the "Our Brother in Black." For the first time, I was convinced that the dark slavery was, after all, the best thing that could be done for the colored people under circumstances. Compare the

conditions of the Indians with that of the negroes. 「When a nation is unfit to govern herself it is better for her to be governed and protected and taught by a more enlightened and stronger people until she is able to be independent.」 Say what you may bring as many real and unreal charges against the English in the east Indian policy. 「I stand by the conviction and undeniable fact that India is infinitely better off under Englishgovernment than it ever did under others. It will be infinitely better for Corea to be under the English, if she is unfit for self-government, than to be under the China.」

December 3rd, 1889

이렇듯 윤치호가 미국 체류기간 중 가졌던 청국관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청나라를 대할 때는 전교해야 하는 대상국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의 국익을 생각할 때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치호의 청국관 - 중서서원 교사 생활 (1893 - 1895)

윤치호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1893년 11월 14일 상해로 돌아와 모교인 중서서원에서 1893년 11월부터 1895년 초까지 영어를 가르쳤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시절과 동일하게 종교적인 시각

을 가지고 청나라를 바라볼 때는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서양인들을 매섭게 비판하였다.

32. To Dr. Young J. Allen

Oxford,

December 18, 1893.

My dear Doctor:

A word or two if for nothing else, at least for bidding you "how d'ye!" We are all doing first rate here. The college in all its departments is doing fine.

Have you read Bishop Key's letter on China? I don't like that way of "cussing out" China—though I have, as you know, always been more or less prejudiced against the Chinese myself. He says most dogmatically that "China, as compared with Christian countries is, a thousand years behind in the race of national progress." By what rules of mathematics has he arrived at such infinite conclusion expressed in numbers "a thousand years"! He then goes on to say "she is afloat like a great hulk without rudder or sail, drifting with wind and tide," etc. To speak about China with a most steady government in the world as being "afloat without rudder or sail!" "The statement of immortal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wilders him" (the Chinaman) says the Bishop. What's strange about that? Has not the learned and

sympathetic(?) Bishop read somewhere in the Bible that "when they heard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mocked; and others said, we will hear thee again of this matter"? The story of the cross has always been a foolishness to a certain class of people, even in Christian countries.7

윤치호가 중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청일전쟁 (Aug 1, 1894 – Apr 17, 1895)이 발발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 세계질서(Sino-centric world order)'에 종지부를 찍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 사상 획기적인 전쟁이었다. 윤치호 또한 이 전쟁을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였다.

33. To Dr. Warren A. Candler

September 20, 1894.

My dear Doctor:

In my last letter, I told you something about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The war was declared on the 1st August as you know. The Far East has had nothing of so great an importance than this war for a long while. On the 15 and 16 inst. a decisive battle was fought at Piong-yang in the North of Corea between the Japanese

7 윤치호, 『윤치호서한집(尹致昊書翰集)』, 1893 年 12 月 18 日.

and Chinese forces. The latter consisting of 20,000 soldiers was utterly routed by a Japanese force of 10,000. If the Chinese fought like they lie, they could beat anybody under heaven. They brag most outrageously. But the thorough rottenness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something dreadful.

You know which side of the struggle I sympathize with. If Japan wins there is hope for the regeneration of Corea. If China gets the better of the quarrel, I may just as well give up the reformation of Corea as a dead thing. To deliver Corea from the corruption and deadening influence of China is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that a Corean may pray for this unhappy country.[8]

윤치호는 서한에서 만약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조선의 개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일전쟁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윤치호는 조선이 드디어 청나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한다.

40.

June 28, 1895.

My dearest Doctor Candler:

[8] 윤치호, 『윤치호서한집(尹致昊書翰集)』, 1894 年 9 月 20 日.

The war is over. Peace may prevail in this part of Asia at least until Russia be ready with Siberian R.R. or Japan be strong enough to take Russia or China be powerful enough to settle her accounts with Japan. That is while there are probabilities of war at any moment its actual occurrence may be years off. In the meantime you may like to know whether Corea has gained anything by the last storm. I think she has on the whole. For:

1. The condition of Corea was such just before the war that she couldn't go worse—if she went to the deuce.
2. The war broke up the nest of rascals who made it their sole business to bleed the people to death by all sorts of exactions.
3. As one of the results of the strife Corea has been freed from the influence of China.
4. The Royal power limited.
5. Useless offices abolished.
6. The caste system weakened.
7. The importance of education recognized.(윤치호 1895, 6.28)

마치며, 과거 윤치호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의

윤치호는 청년기 시절부터 상해와 미국에서 유학, 그리고 다시 상해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청나라가 부패하고 불결한 나라로 부정

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모국의 개화 표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윤치호는 청나라 또한 종교 전교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나라로 매사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윤치호는 직접 일본, 청나라,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서로 다른 근대화 모델을 경험하고 비교함으로써 조선의 진정한 개화를 위해서는 청나라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예견한 것이다. 실제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중체서용의 근대화를 노력했지만 청일전쟁의 패로 궁극적으로 실패하여 머지않아 멸망하게 된다. 이토록 윤치호는 냉철한 비교분석을 통해 서양식 일본 모델을 통해 모국을 근대화를 시도한 당대 조선 말기 시대에 지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윤치호의 추후 친일 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이 한반도의 정세를 장학하던 19세기 후반에 본인의 소신을 내세운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영선 교수는 “척사와 개화와 같은 소박하고 무리한 이분법으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칼질하기보다는 섬세한 눈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좌절한 꿈을 조심스럽게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윤치호가 당시 청국관이 단순히 친일 개화파로 분류하는 것보단 격동하는 19세기 말을 조선,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며 모국인 조선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윤치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윤치호일기를 통해 당대 개화

가 꼭 친일을 뜻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의로서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을 뛰어넘어 복합적인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귀중한 교훈도 준다.

참고문헌

윤치호.『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

윤치호.『윤치호서한집(尹致昊書翰集)』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1998.『윤치호의 생애와 사상』서울: 을유문화사

김영희. 1999.『좌옹 윤치호 선생약전』. 서울: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장인성. 2012.『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하영선. 2019.『한국 외교사 바로보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6장

마오쩌둥의 신중국 외교: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의 이상과 한계에 관하여 _마오쩌둥 기념관

손승포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1962년 2월 무렵, 처칠은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도래를 알린다. 미소 갈등의 심화는 중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당해 6월 국공내전의 발발을 견인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 마오쩌둥은 세계 정세에 대한 독자적 판단을 담은 '중간지대' 개념을 구상하게 된다. 마오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간지대 개념을 더욱 체계화하여 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삼개세계론을 주창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마오쩌둥 집권기(1949-1976) 중국 외교는 대략 10년 단위로 나누어 세 단계에 걸쳐 이해할 수 있다(가와시마 신, 모리 가즈코

2012).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는 즈다노프(A. Zhdanov)의 양대진영론(兩大陣營論)을 수용한 친소반미 노선의 소련일변도(蘇聯 一邊倒) 외교, 1960년대에는 중간지대론에 기반한 제3세계외교와 더불어 반제반수(反帝反修)로 대표되는 반미반소의 고립주의 외교, 그리고 1970년대는 삼개세계론을 바탕으로 한 반소 국제통일전선의 형성과 미·중 데탕트의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글은 세 시기를 마오 고유의 중간지대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신중국 외교는 냉전 체제 하 초강대국이던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며 고립을 자처한 시기로 분명히 국제 안보 전략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띄고 있다는 데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재철, 2007). 중국이 가장 안보적으로 취약했던 시기를 지탱하던 사상적 토대인 중간지대론과 그 유산에 대해 학계의 주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본 글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혹자는 마오쩌둥 개인의 대외 인식을 통해 신중국 외교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오쩌둥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백 년 간 지속된 국가적 혼란을 끝낸 혁명적 지도자로써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거 황제의 지위에 비견될 만한 것(Teiwes, 2001)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국이라는 이중의 과제가 교차하던 냉전 초기, 중공 지도자들의 대외 정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빈곤은 외교 안

보 전략에 있어 마오쩌둥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뉴쥔 2015, 5-63). 즉, 마오쩌둥의 대외 인식은 곧 신중국의 대외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마오쩌둥의 사상적 유산이 현대 중국 외교의 기본 원리로 계승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마오 개인에 대한 연구는 곧 신중국 초기 외교에 대한 연구 다름이 아닌 것이다.

중간지대의 창안과 소련일변도 선언

"중간지대"에 관한 마오의 독자적 인식은 국제적으로 냉전 구도가 정착되고 국내적으로는 내전이 진행되던 1946년 8월, 미국 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A. L. Strong)과의 담화에서 처음 확인된다.

> "미국과 소련은 **매우 광활한 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고, 거기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주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와 식민지, 반(半)식민지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동파가 이러한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전에는** 도저히 소련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중략)… 미국은 여러 가지 구실 하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규모 군사 배치를 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동파는 그들이 세계 각지에 이미 설치해 놓았거나 이미 설치하려는 군사기지는 모두 소련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말대로 이러한 군사기지들은 소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맨 먼저 미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것은 소**

련이 아니라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마오쩌둥 1946)

마오는 냉전 질서 이래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대 패권국 사이에 광범위한 중간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국제 정세에 관한 냉전적 도식을 수동적으로 섭취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중간지대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건설된 신생 민족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역시 중간지대 개념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세계는 미소에 이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련 그리고 중간의 광활한 지대에 의해 삼분되어 있는 것이며, 중간지대에 위치한 수많은 자본주의, 식민지 그리고 반식민지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미국 제국주의의 우선적 목표에 해단한다는 것이다.

마오가 세계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자유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으로 이분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중간지대를 포함해서 삼분하여 이해하게 된 데에는 그의 모순론적 사고가 기여한 바 있다. '모순론'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용되는 변증법적 논리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마오는 사회발전의 기반은 모순의 지속적 발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은 당대의 주요 모순을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옥준 2011, 35-41). 이러한 마오의 모순론적 사고는 중국 혁명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예가 중간지대론인 것이다. 마오는 당시 세계 주요 모순이 미소를 둘러싼 이념 및 체제 대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과 인민 혁명 세력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연대하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간지대 국가들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협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항하는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해 마오가 제기한 것이 바로 "연막론"이다.(Mao Zedong 1946, 43-45) 미국의 '반소 전쟁 슬로건'은 중국을 포함한 중간지대 국가로의 침략 행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한 것으로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은 미국의 책략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Mao Zedong 1954, 121-122; Mao Zedong 1954, 123-126)

세계 주요 모순을 미국 대 소련이 아닌 미제 반동 세력 대 인민혁명세력 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마오의 사고는 이후 더욱 구체화되는데, 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광적인 침략에 반대"하고 "내전으로 중국 인민을 학살하는 매국적이고 독재적인 국민당 반동 정부에 반대"하는 혁명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김승일 2008, 270-274) 이후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미국을 사회주의 진영의 주적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승일 2008, 390-405). 국공내전이 진행되던 시점 중국 공산당의 주적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던 장제스의 국민

당 정부였다면, 혁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주적은 미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950년 2월,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소련과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소련일변도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대외 정책의 커다란 선회 – 중간지대론으로부터 소련일변도로의 변화 – 로써 인식되는 것은 실상에 대한 절반의 진실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일관성이 부재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마오쩌둥의 사고에 따르면 중간지대론과 소련일변도 노선은 모두 제국주의 세력과 인민 혁명 세력 간의 모순을 공유하고 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마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진영의 대립항은 '자본주의'진영이 아닌 '제국주의' 진영이었던 것이며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을 주는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에게 대항한다는 데에서 정합적 내부 논리를 가진 일관된 대외 정책이었던 것이다(이원준 2019).

중국은 실제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중간지대의 제3세계 국가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간지대는 중공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전략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아시아는 세계정치 판도를 변화시킬 힘이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뉴쥔 2015, 401-434). 중국은 혁명과 투쟁 대신 비교적 온건한 언어 구

사를 통해 기존의 호전적이고 급진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한편 침략과 수탈을 반복한 서구 산업 국가들과 차별화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이 내세운 주권과 영유권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및 평화공존의 5개원칙은 식민지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반둥회의를 통해 평화10원칙으로 확장된다. 중간지대는 곧 양대 진영 밖에서 중국이 펼치는 새로운 전략 경쟁의 무대이자 냉전 체제 하에서 모색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교 공간의 발견으로, 특히 그 과정에서 제시된 평화 5원칙은 향후 중국 외교 수사를 규정짓는 규범적 원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지대론과 삼개세계론

마오쩌둥의 중간지대론은 소련일변도의 선언 이후 1954년 중국 대외 정책의 구체적 전략으로써 등장하는데 마오는 미국과 '중간지대'의 균열, 자본주의 세력 내부의 모순을 활용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마오는 영국노동당 대표단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미합중국은 일본에서 영국에 이르는 **중간지대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면의 동기를 숨기고 반공이라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중략)… 미국의 목적은 광활한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을 점령하

> 고, 괴롭히고, 그들의 경제를 통제하며, 군사 기지를 설립하고, 그들이 쇠약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일본과 독일은 중간지대에 포함된다.”** (마오쩌둥, 1954)

이는 1946년에 제기된 제국주의 “연막론”을 일면 답습한 논리 같아 보이지만 초기의 중간 지대 개념과는 중대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1946년 8월에 제시된 중간지대 개념에서의 주요 행위자가 혁명적 인민 세력이었다면 1954년 등장한 제1차 중간지대론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전후 질서 속 탄생한 수많은 신흥독립국은 물론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칭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뉴쥔 2015, 407-409). 중간지대 국가에 대한 마오의 발전된 이해는 다음의 글을 통해 더욱 명확히 표현된다.

> “**서독**과 같은 독점자본주의 국가는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저항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지역을 **중간지대**라 부르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한 쪽으로, 그리고 미국이 다른 한 쪽으로 계산된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상이하다…(중략)… 그러나 **미국은 그 모두를 집어삼키고자 한다.**” (마오쩌둥 1962)

즉, 마오는 양대진영론의 기초 위에서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인식되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기 모순이 심화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반제국주의적 기치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연대가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중국 외교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고자 한 것이다. 중간지대에 관한 마오의 확장적 인식은 프랑스 드골이 주도하는 독립 외교의 등장과 함께 더욱 굳어진다.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을 목격한 마오는 미소 양 제국의 이분법적 냉전 구도를 거부하는 흐름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역시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Michael Yahuda 1983, 104-114).

마오는 이후 세계가 “두 개의 중간지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지대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들을 제1중간지대라고 불렀다. 두 번째 지대는 “유럽, 일본과 캐나다”로 대표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써 미국과의 사이에서 모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들을 제2중간지대라 불렀다. 즉, 세계는 삼분되어 있으며, 중간지대는 다시금 제1중간지대와 제2중간지대로 나뉜다는 것이며, 제1중간지대는 제2중간지대의 산업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적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걸쳐 모든 인민은 미국에 반대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많은 사람들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몇몇 제국주의자들 또한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기도 한다. 미국에 대한 드골의 반대가 그 증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는 관점**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그 첫 번째이며, 유럽,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 역시 두 번째 중간지대에 속한다.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자 역시 미국에 불편을 기색을 내비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비록 많은 이들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미국을 권좌에서 쫓아낼 것이다.” (Mao Zedong 1964)

세계는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이 이끄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 그리고 그 사이 중간지대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며,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공산당이 반제국주의 투쟁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혁명의 최전선이 아닌 반제국주의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연대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 위상이 변화한 것이다. 당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중간지대 국가의 민족해방 운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중국의 세계혁명전략이라는 지극히 이념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곤 하였다(김옥준 2009). 그러나 마오는 중간지대론을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뿐만 아니

라 종래 제국주의의 주구(走狗)로 인식되던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삼개세계론

중간지대에 관한 마오의 70년대에 접어들며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60년대부터 진행된 소련과의 관계 악화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그는 제2차 중간지대론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보다 현실주의적 방향으로 논리를 발전시킨 삼개세계론을 주창하게 된다.

> "마오쩌둥: 제1세계에는 누가 해당되는가?
> 카운다: 착취자와 제국주의자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오쩌둥: 그렇다면 제2세계에는?
> 카운다: 수정주의자가 되어버린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오쩌둥: 나는 **미국과 소련이 제1세계**에 속해있다고 생각한다.
> 그 **중간은 제2세계**로 일본과 유럽, 호주와 캐나다가 해당된다.
> **나머지는 제3세계**에 해당한다." (Mao Zedong 1974)

마오는 6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는 양대진영론의 기초 위에서 세계를 삼분하던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미국과 소련을 동일한 제1세계권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한 자기인식은 중간지대 국가에서 제3세계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소련을 더 이상 중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 아닌 투쟁해야 할 저항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소련은 미국과 같이 제3세계를 착취하는 제1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오랜 애증의 역사로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계속해서 의심하였으며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그 이후 소련이 보여준 거만한 태도는 마오쩌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의 일변도 외교는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소련식 산업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성취하는 한편 미국이라는 압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만 했던 현실적 필요 속에서 추진된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Michael Yahuda 1983; 이동률 2015). 스탈린 사후 1950년대에 접어들어 집권하게 된 흐루쇼프(N. Khrushev)가 주도한 '스탈린 격하 운동'은 중국과 소련 간의 수정주의 이념 논쟁을 부추겼으며 한국 전쟁(1950)과 타이완 해협 위기(1958) 속에서 노정된 소련의 군사적 소극성은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Nakajima Mineo 1977). 또한, 흐루쇼프가 내세운 "평화공존론"은 타파해야 할 수정주의적 이념이자 중국에 대한 사상적 그리고 안보적 배반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 미소 간에 이루어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1963)"은 소련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공모하

고 있다는 중국의 의혹을 가중시켰으며(Miachael Yahuda 1968) 소련의 체코 침공(1968)은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식 팽창주의를 중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이르게 하였다. 양국 간의 긴장은 결국 중소 간의 국경 분쟁(1969)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마오의 안보불안감을 가중시키며 본격적인 반소 통일 전선 형성에 나서게 한다(Yang Kuisong 2000). 당시 마오쩌둥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중된 안보 불안감은 향후 미중 데탕트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Radchenko, Sergey 2017). 결국 중국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인식에 따라 미제국주의와 소련 사회제국주의를 동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와 반수정주의 노선을 걷게 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1중간지대와 제2중간지대의 연대를 통한 통일혁명전선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김옥준, 2009).

중간지대론의 의의와 한계

마오쩌둥의 중간지대론은 중국 외교의 높은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청왕조의 몰락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회복해내고자 하는 마오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그 한계 역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중간지대론의 허와 실, 공과 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의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8년, 마오쩌둥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국제 질서를 냉전이라는 체제 대립의 맥락이 아닌 서세동점의 시기 이래 지속되어 온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중간지대 개념에서 세계적 대립구도의 경계선은 미소 사이가 아닌 제국주의적 반동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중간지대'의 인민 사이에 그어진 것이다(이원준 2016). 이는 곧, 동서간의 수평적 갈등관계를 상정하는 냉전적 도식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수직적 갈등 관계- 선진자본주의 세력과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생독립국가 사이의 모순 -를 상정하는 혁신적인 논리(Okabe Tatsumi 1977)였던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평화5원칙과 반둥 외교는 미중이 주도하는 양극적 국제 질서 속 중간지대로의 진출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점하고자 했던 중국 다자외교의 시발점이라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뉴쥔 2015, 434-435).

마오쩌둥의 중간지대론은 또한 국내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논리였다. 마오는 세계 모순에 대한 독자적 판단을 통해 중국 혁명 운동의 중요성과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마오는 의도적으로 미소 갈등의 중요성을 격하하는 한편 세계인민과 제국주의적 반동세력 간의 투쟁을 부각시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그 세계사적 흐름 한 가운데 위치시킨 것이다. 즉, 중간지대론을 통해 중공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은 단순히 중국 내부 모순을

혁파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의를 띤 운동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 정세의 핵심 모순이 미국과 '중간지대' 사이에 존재함을 전제함으로써 미국의 물질적 지원을 받는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간의 전선은 곧 세계 혁명의 최전선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오는 사회주의 혁명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은 물론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이후 소련과의 내부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원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Okabe Tatsumi 1977, 231-233).

또한, 베트남 전쟁의 발발은 마오가 중간지대론에서 지적한 세계의 주요 모순이 증명된 사건이자 중간지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미 제국주의의 야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Michael Yahuda 1983, 110). 이후 국제혁명전선에서의 중국의 주도적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중간지대론의 논리는 중공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새롭게 정의 내리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뉴쥔 2015, 18-23).

한계

그러나 중간지대론은 한계 역시 명확했다.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대약진운동(1958-1961)과 문화대혁명(1966-1976)의 흐름 속에서 과격화 된 중국의 외교는 국제환경 현실과 괴리된 채 고립되어 갔으며, 중국의 대 중간지대 외교 역시 초기의 성공 이후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혁명의 분위기가 중국 외교의 수사를 지배하던 60년대에 이르러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 정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온건한 외교 정책은 혁명 수사로 점철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기니, 가나, 말리 3개 국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김옥준 2011, 72-76).

또한, 중간지대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 패권 세력에 저항한다는 발상은 상당 부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관점으로 객관적인 물상조건을 직시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1950년대 반미노선에 더해 1960년대 반소 노선을 걷게 되며 지나치게 이념화된 중국의 대외정책은 조국을 유례없는 안보 위기로 몰아넣게 된다. 소련은 1969년 전다바오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120만 대군을 주둔시키며 북방 전선을 형성시켰으며, 베트남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남방에서 미국과의 간접적 전쟁까지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에 모두 대항해야 하는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시기를 경험하며 중국의 안보 불안감은 극에 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오가 미국과의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곧 형해화 한 중간지대론을 포기하고 현실주의적 대외 정책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는 것 다름 아니었다. 냉전 체제 하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과 소련을 동시에 적대시하는 것은 애당초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미루어 보았을 때 비현실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가 명확했다면 어떻게 중간지대론에 기반한 고립주의 정책이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 물론 외교의 이념화가 한 가지 원인이겠지만 이외에도 국내 정치적 원인이 존재하였다. 마오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기점으로 위축된 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급진적 대외 정책을 대중 동원의 도구로 활용했다 것이다(Chen Jian 2012, 10-11). 대약진운동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으로 마오는 국내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이끈 혁명적 열기 역시 식어가는 듯했다. 국내적으로는 류샤오치(劉少奇)를 비롯한 정통 레닌주의자들과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였기에 마오가 주도하는 혁명에 대한 당 내부의 지지 역시 빈약해지고 있었다. 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역시 퍼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 마오는 극단적 대외 정책을 통해 마오 개인의 권위 회복은 물론 계속적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Chen Jian 2012, 49-84). 실제로 그는 소련과의 이념 논쟁을 국내 정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하기 위해 그 양상을 극대화한 면이 있으며, 반수정주의의 기치 이래 류샤오치를 축출하였다. 다시 말해 60년대 혁명 외교는 마오쩌둥 스스로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스로 동원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반소반미 노선의 장기화를 마오쩌둥이 의도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신, 국내외적 상황 – 혁명적 열정과 베트남 전쟁 – 속에서 중간지대론은 강제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양패권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소련의 위협으로 안보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데탕트로 귀결된 것이다.

결론

마오쩌둥 집권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에 대항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친소반미에서 시작하여 반소반미, 그리고 반소친미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국의 대외 정책은 일면 그 예측가능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외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중국 외교는 세계의 주요 모순을 파악하여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 세력의 변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데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간지대 개념을 통해 세계의 주요 모순을 미소 간의 냉전 질서가 아닌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과 식민지의 인민 혁명 세력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중국혁명의 최대 위협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장제스 국민당 정부였다. 즉,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제1차 중간지대론을 통해 중국 혁명을 이미 자기 운동 능력을 지닌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해석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중공은 국민당 정부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성과 역사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중국 혁명의 위상을 세계사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을 택하지만, 중국은 머지않아 소련을 중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소련 특유의 거만한 태도는 건국 이전부터 마오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군사 동맹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보여준 군사적 소극성, 스탈린 사후의 수정주의 이념 논쟁, 동유럽에 대한 폭력적 간섭과 반복되는 중국과의 국경 충돌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의 팽창주의를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마오는 제2차 중간지대론에서 세계가 삼분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종래의 연대 파트너로 여겨지던 신생독립국의 제3세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 역시 반제국주의 기치 아래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인정하며 반소반미 노선을 확립한다.

그러나 근 십여 년 간 지속된 혁명외교는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극단적 이념성에 기반한 중간지대론은 포기되고 미중 데탕트가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마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국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중간지대론에 기반한 혁명외교를 추진했음 역시 확인된다.

참고문헌

가와시마 신, 모리 가즈코. 2012. <중국외교 150년사>. 이용빈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옥준. 2009.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정책: 건국 후 60년대 말.” 중국학 논총, 27, 237-265.

김옥준. 2011. <중국 외교노선과 정책>. 서울: 리북.

김재철. 2007.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뉴쥔. 2015. <냉전과 신중국 외교의 형성>. 박대훈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마오쩌둥. 2008. “미국 기자 안나 루이스 스토롱과의 담화.” <모택동 선집4>. 김승일 옮김. 서울: 범우사

마오쩌둥. 2008.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관하여.” <모택동 선집 4>. 김승일 옮김. 서울: 범우사

마오쩌둥. 2008. “전세계의 혁명세력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자.” <모택동 선집 4>. 김승일 옮김. 서울: 범우사.

이동률. 2015. “1972년 중국의 대미 데탕트 배경과 전략.” <1972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하영선 편. 서울:동아시아연구원.

이원준. 2016.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모택동의 외교노선 변화와 그 함의.” 중앙시론(44), 343-383

이원준. 2019. “중간지대론과 일변도 노선의 연속성: 건국 전후 시

기 모택동의 세계 인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48, 377-408.

Chen Jian. 2012. *Mao's China and the Cold Wa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Mao Zedong. 1946. "Talk with the American Correspondent Anna Louise Strong." In *Ma Zedong on Diplomacy.*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ao Zedong. 1954. "Application of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Should be Extended to State Relations Among all Countries."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ao Zedong. 1954. "On the Intermediate Zone, Peaceful Coexistence, Sino-British and Sino-U.S. Relations."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ao Zedong. 1962. “The Countries in the Intermediate Zone Vary in Nature.”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ao Zedong. 1964. “There are Two Intermediate Zone.”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ao Zedong. 1974. “On the Ques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Three Worlds.” Edi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y Literature Research Cen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ichael B. Yahuda. 1968 .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1963: the Maoist Phase.” *The China Quarterly,* 36, 93-113.

Michael Yahuda. (1983). *Towards the End of Isolationism: China’s Foreign Policy After Mao*. The Macmillan Press Ltd.

Nakajima Mineo. (1977). The Sino-Soviet Confront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University of Tokyo Press.

Okabe Tatsumi. (1977). “The Cold War and China.” 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University of Tokyo Press.

Radchenko, Sergey. 2017. “Untrusting and Untrusted: Mao’s China at the Crossroads, 1969.” *China, Hong Kong, and the Long 1970s: Global Perspectives*. Eds, Roberts, Priscilla, Westad, Odd Arne. Palgrave Macmillan.

Yang Kuisong. 2000. “The Sino-Soviet Border Clash of 1969: From Zhenbao Island to Sino-American Rapprochement.” *Cold War History,* 1(1), 21-32.

7 장

798 예술구의 운동가, 아이웨이웨이 예술의 정치학 _798 예술구

강세희

중앙대학교

들어가며

정치와 예술, 이 둘은 오래전부터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술은 단지 미적인 요소만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사회를 비평하고 시대의 이슈를 가시화하며 관람객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도록 합니다. 예술이 보여주는 사회 문제들의 분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이슈를 빠트릴 수 없지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예술은 다양한 예술가들을 통해 사회의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던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시기까지 중국의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 내며 중국 현대 미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 다산즈에 위치한 798 예술구는 1950 년대 국영 공장의 재개발 지역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성장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며 다양한 정치적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 798 예술구의 역사와 798 예술구의 대표 작가인 아이웨이웨이의 예술 세계에 대해 살펴본 뒤, 그에 내재된 그의 정치적 사상과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살펴보고, 참여형 예술과 정치적 행동의 경계선에서 현대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려 합니다.

798 예술구의 역사와 아이웨이웨이

798 예술구는 베이징 동북 다산즈에 위치한 대형 복합 예술단지입니다. 매년 200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을 만큼 현대 예술을 선도하는 문화예술지역으로 손꼽힙니다. 798 예술구는 1980 년대까지 원자탄이나 인공위성 부품을 생산하던 연합 공장의 일부였으나 경영난의 심화로 임대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저렴한 공간을 필요로 하던 예술가들이 모여 문화 예술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기에 서양의 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융합되어 동서구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공존시키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798 예술구에 중국과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기존의 창작

예술가들이 쫓겨난 자리에 갤러리와 카페가 들어서면서 798 예술구 본연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현재 이 798 예술가의 대표 예술가로 꼽힙니다.



1 798 예술구의 길거리 풍경, 조선일보, 박수찬 특파원, 2021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출신의 설치미술가이자 영화감독이며 건축가인 동시에 주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에 대항하는 작품을 보여주는 인권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1981 년부터 1993 년까지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행위예술을 하였고 기성품 사물을 변형하여 개념 미술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1993 년, 그의 아버지인 시인 아이칭(艾青)의 병환이 악화되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그는 중앙 집권 체제, 중국의

문화사, 우상 타파, 현대성의 부정 등에 관한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2003 년 그는 건축 사무소인 FAKE Design 을 설립해 베이징 올림픽 메인 경기장인 냐오차오(鳥巢) 설계의 미술 컨설턴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 년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의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활동을 해오다가 2010 년 11 월 정부에 의해 자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체포되어 연락이 두절되자 SNS 에서 아이웨이웨이를 찾는 'Free Ai Weiwei' 해시태그 및 릴레이 사진 업로드 운동이 이어지는 등 전세계로부터의 관심과 석방 지지를 받다가 보석 받은 이후 2015 년 7 월에 독일로 출국하여 베를린에 머무르다가 2019 년부터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핵심 키워드는 'Act'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닌 백상이 불여일행, 백 가지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주장하는 그는 798 예술구의 대표 예술가이자 저항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풍자와 은유를 통해 대중들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정창미, 2014). 그는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우리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정보를 습득할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도난당한다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그에 대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내 창작 활동의 기본 이념이다.(Ai Weiwei, 2010)"

표현의 자유와 정보 습득의 권리를 중시하는 아이웨이웨이답게 그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내기도 했습니다. 2006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블로그를 이용하여 예술가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했으며, 블로그를 통해 인간의 조건과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슴 없이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블로그는 1분마다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인터넷 기술이 자신과 세상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현재 아이웨이웨이는 SNS에서 6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는 지금도 SNS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인권을 위한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수많은 작품들 중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자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Study of perspective series"를 들 수 있습니다. 강한 반체제, 반정부 사상을 드러내는 거침 없는 작품으로 예술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서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정창미, 2014).



2 Study of perspective - White House, Ai Weiwei, 1995, C-Prints,



3 Study of perspective - Eiffel Tower, Ai Weiwei, 1995, C-prints, 38.9x59cm

이 작품은 에펠탑과 백악관, 천안문, 모나리자, 바티칸 등 정치와 예술 권력에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비판의 원근법을 나타냅니다. 1995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지를 세운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을 시작으로 아이웨이웨이는 100여 곳에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의 행동이 국가 권위주의의 근간을 실제로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당국의 간섭과 검열, 나아가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Study of perspective”를 통해 권력이 숨은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직접 건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지만, 가운데 손가락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향해 화살을 겨눌 것인지를 각자 판단하도록 합니다.

아이웨이웨이식 원근법은 시선의 중요성과 판단의 힘을 강조하며 기존의 예술에서의 원근법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현실의 재현이 아닌 현실의 창출,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근본적이고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참여가 아이웨이웨이가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장소를 찾아 중지를 내민 사진 모음집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항을 나타내는 아이웨이웨이의 일관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주의의 상징인 해바라기의 씨앗을 홀을 가득 채우게 전시한 작품 ‘Sunflower Seeds’를 통해 중국의 인구 과잉과 육체노동자들의 비가시성을 비판했습니다. ‘Sunflower seeds’는 중국 장시성 북동부의 제 1 도자기 생산지인 징더전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던 장인들과 함께 1 억개의 해바라기 씨앗 모양의 도자기를 구워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 설치한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작품 위를 걸어 다니며 완전하게 작품을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사망한 4,851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읽고 추모하는 비디오아트인 '4851', 쓰촨성 지진으로 죽은 아이들의 책가방으로 '아이는 세상에서 7 년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설치 작업인 'Remembering' 등의 작품을 통해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 각을 세웠습니다.



4 Sunflower seeds, Ai Weiwei, 2010, Installation art



5 Remembering, Ai Weiwei, 2009, Installation art

아이웨이웨이는 걸음마도 떼기 전, 반공주의자로 낙인찍힌 아버지와 함께 고비사막으로 쫓겨나 16 년간 강제 노동 명령을 받았고 그 곳에서 예술 활동의 경험을 하기는커녕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시대에 성장한 아이웨이웨이는 비판적 사유 능력을 몸으로 직접 익혔으며 당시의 맑스, 레닌, 마오쩌둥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은 그의 가치관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년기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열악한 환경에서 보냈기에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직접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웨이웨이, 선동가와 예술가 사이의 정체성

중국 내 문제를 고발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속되는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아이웨이웨이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웨이웨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아이웨이웨이의 지나친 유명세가 그의 예술가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를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련의 행보를 돈키호테에 비유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진지한 도덕적 인식 고양이나 성찰적 모습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쇼맨십 만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를 예술가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그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동에 관계없이 그의 작품으로서의 수많은 참여 미술을 심미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일례로 그의 대표작인 Sunflower Seeds 는 도자기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폐에 해로울 수 있기에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전시가 제한되었는데[9] 이런 디테일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가 예술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평론가들도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이웨이웨이가 2007 년 전시회에서 표절을 저질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Kyle Chayka 2010).

독일의 드레스덴 국립 미술관 관장인 마틴 로스(Martin Roth)는 아이웨이웨이에 매우 부정적인데, 그를 '투덜거리기만 하는 예술계의 불쾌한 선동가(obnoxious agitator in an art scene full of whiners)'라고 비유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아이웨이웨이는 그 중에서도 언론 플레이에 능하여 대중의 선동에 성공한 사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Kyle Chayka 2011). 뿐만 아니라 BBC 의 인터뷰에서 류샤오밍 (劉曉明) 중국 외교관 역시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많으며, 아이웨이웨이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중국 정부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웨이웨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의 비합리적인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회계문서파기와 회계부정 등으로 경제사범으로서의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중국 정부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명세를 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David NG 2015). 류샤오밍의 BBC 인터뷰가 게시된 이후 아이웨이웨이는 자신의 SNS 계정에 세금관련 문서 사진을 증거로 게시하며 류샤오밍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이러한 대처에 대한 류샤오밍의 반박이나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한 중화권 반체제적 유명인사들에 대한 서구권의 주목과 일시적인 유행이 중국 내 민주적 반감의 약화, 즉 중국의 체제 존속에 분란을 준다고 주장하는 중국

네티즌들도 존재합니다(Kyle Chayka 2011). 이들은 아이웨이웨이 뿐만 아니라 급진주의자로 손꼽히는 작가 류 샤오보 역시 중국을 어지럽히는 선동가라고 분류하여 함께 공격하는데, 이러한 반체제,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인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이기에 결국은 공산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인민들의 역사와 문화, 취향을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대표하는 것은 그의 과격한 행동과 그의 서구적인 성격, 유창한 영어에 매료된 서구의 팬들일 뿐이지 중국 인민들이 아니며, 따라서 중국의 정치적 대표 모델로서 나설 정당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SMH 2011). 그러나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투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검열, 인권 탄압 뿐만 아니라 서구의 근시안적 이익과 탐욕을 비판하기도 하며 인류에 대한 믿음과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지성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그 발언을 몸소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수차례 감금, 협박, 폭행을 당하고 스튜디오가 철거당하는 수난을 겪고 난 후에도 아이웨이웨이의 한결같은 목소리 내기와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는 중국 정부의 탄압과 폭력을 고발하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많은 팬들과 후원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급진성을 인정하면서 예술에 있어서 벽에 그림을 걸거나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 1위 (Artsy PLANET ART 2015)로 뽑힐 만큼 강력한 정치적 인물입니다.

웨이웨이이즘의 정치학

아이웨이웨이에게 있어 활동가의 정체성과 예술가의 정체성의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웨이웨이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예술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아이웨이웨이의 어록들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이란 무엇이고 또 그에게 있어 예술과 정치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왜 사회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질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답은 명료하다: “당신이 예술가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와 결부시켜야 한다.” (Ai Weiwei 2013)

아이웨이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어록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삶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빗대며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지는 제약과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상상력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고 언급합니다(Ai Weiwei 2013). 아이웨이웨이는 자신이 미술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과 발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현대 예술가들에게 '축복받은 표현의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고 장려합니다. 동시에 예술가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로 많은 사건과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정작 손길을 내밀거나 눈길을 주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 인터넷 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공동의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정 이슈를 위해 함께 행동한다. 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아이웨이웨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어디선가 내 일을 꿋꿋이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을 뿐이다(Ai Weiwei 2013).

그런 그에게 있어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인터넷의 사용입니다(Ai Weiwei 2013). 서로의 정치적

성향, 가치관, 선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이슈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의사소통의 힘으로부터 생성되며, 이러한 권력은 법치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Habermas, Jürgen, 1996). 소통이 부재하고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의견 교류는 국가의 부정의를 지적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자신이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도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며 시공간의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 낸 기술의 발전에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Ai Weiwei 2013). 아이웨이웨이는 통제하기 힘든 온라인 세상에서 자유가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 깨달은 후의 나의 선택들은 다음과 같다 : 진실될 것인가 거짓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세뇌될 것인가? 자유로울 것인가 감금될 것인가? (Ai Weiwei 2013)

그는 수동성을 거부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 현대미술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계속되는 탄압은

아이웨이웨이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 그대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록 나는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만다.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가치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만다(Ai Weiwei 2013).

어떤 사람들은 아이웨이웨이가 서구 문명의 대변자라고 비난합니다. 만약 그가 서구를 대변하는 선동가였다면 미국 백악관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억압에만 대항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권위와 착취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스스로를 경계선을 넓히는 예술가라고 지칭합니다.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뒤집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명명합니다(Ai Weiwei 2013). 더불어 문화를 통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배와 단속을 비판합니다.

아이웨이웨이의 행보는 기존 사회에 결핍되었던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개인이 주도하던 사회운동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힘이 강해질 수록 사회의 기반은 확대되고 견고해집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완화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으며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성장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결집된 움직임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환원하여 국가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시민과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동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주권을 자각하도록 하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진태원, 2017).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의 통점을 지적하는 것,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치며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정적이고 부드러운 선율로, 때로는 참신하고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예술은 세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이 정치적 문제의 해결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웨이웨이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자신보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집중하려고 주력합니다. 자신이 끊임 없이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유 역시 자신이 예술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인식, 그리고 현실의 창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웨이웨이가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예술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과 무관하다면,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반달리즘이 만연했던 문화대혁명 시대를 몸으로 겪었던 아이웨이웨이는 유년기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환경에서 보냈기에 사회의 모순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우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Coronation'을 공개하며 중국 정부의 부조리와 잔혹함, 비인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주의와 군사화된 주민 감시를 고발하는 아이웨이웨이의 행보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등소평 체제 하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과 홍콩 문제 등 인권 탄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 검열, 내부 감시와 통제는 타국으로부터도 수차례 지적을 받는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 중국 정부는

문화 정책을 통해 계획 예술 공간을 설계하려고 하는 노력하고는 있으나 반정부 성향의 작가와 작품에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방 주도의 문화산업으로 '문화' 자체보다는 '산업'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은 개인의 가치나 사상을 드러내는 예술가보다는 돈이 되는 작품을 만드는 일종의 '사업가'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예술가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해 문제를 계속해서 표면 위로 드러내고 목소리 내는 예술가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겐 제 2, 제 3의 아이웨이웨이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박상미. 2014.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작품에 반영된 체제 비판적 요소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26, 188-215

정창미. 2016.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참여미술 속 풍자와 은유, 미술사학, (31), 149-181.

진태원. 2011.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96, 169-201.

아이웨이웨이. 2011. 'Ai Weiwei :육성으로 듣는 그의 삶, 예술, 세계, H. U. 오브리스트 인터뷰', 파주: 미메시스

박수찬, “예술도 공산당에 충성하라” 지침… ‘베이징 798’ 몰락 불렀다, 출처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7/11/Z734SQJ2QZCATMMY62DMOYJVYA/ 조선일보, 2021.07.11

박영순, 베이징 '798예술구' 떠나는 예술가들, 이유는?,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88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15.02.11

심은록, 30년 동안 周易을 예술적 언어로 재현…중국의 명소 798예술단지 설립, 출처 : http://www.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2&t_num=8177 이코노미 조선, 2015.01.01

Habermas, Jürgen. 1996.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J.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 Cambridge, MA: MIT Press. pp. 491-515.

Ai Weiwei. 2013. ‘Weiwei-isms’, UK: Princeton University Press

Ai Weiwei, Maurizio Bortolotti. 2014. ‘Ai Weiwei: Disposition’, Koenig Books

Ai Weiwei, ‘Co-China论坛第八场:对话艾未未’, (香港中文大學校

Co-China論壇 講演會, 2010.04.13

Beijing, “Detained Chinese artist accused of plagiarism”,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1.04.11, https://www.smh.com.au/world/detained-chinese-artist-accused-of-plagiarism-20110410-1d99i.html

David NG, “Ai Weiwei criticized by China’s ambassador to Britain”, <Los Angeles Times>, 2015.10.20,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culture/la-et-cm-ai-weiwei-china-ambassador-20151020-story.html

Jonathan Jones, “Is Ai Weiwei still an artist?”, <The Guardian>, 2013.04.24,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jonathanjonesblog/2013/apr/24/ai-weiwei-still-an-artist

Kyle Chayka, Ai Weiwei’s sunflower seeds prove hazardous to visitors and staff, <HYPERALLERGIC>, https://hyperallergic.com/11132/ai-weiwei-seeds-hazardous/, 2010.10.19

Kyle Chayka, “The Backlash Against Ai Weiwei”, <HYPERALLERGIC>, 2011.04.12, https://hyperallergic.com/22623/backlash-against-ai-weiwei/

Lindsay Maizland, Ai Weiwei has become a symbol of dissidence worldwide. It shows in his art.

https://www.vox.com/world/2017/6/27/15839188/ai-weiwei-art-dissident-hirshhorn-dc-installation-activist, 2017.06.27

Mark Stevens, Is Ai Weiwei China's Most dangerous man? https://www.smithsonianmag.com/arts-culture/is-ai-weiwei-chinas-most-dangerous-man-17989316/, 2012.09

Prize Artist: Ai Weiwer's Fame Problem, Art in America, https://www.artnews.com/art-in-america/features/prize-artist-ai-weiweis-fame-problem-60122/, 2018/08.13

The Top 10 living Artists of 2015, Artsy PLANET ART,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the-top-living-artists, 2015.12.15.

Tim Lewis, Ai Weiwei: 'An artist must be an activist',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20/mar/22/ai-weiwei-an-artist-must-be-an-activist, 2020.03.22

Toby Fehily, There are better ways for Ai Weiwei to take a political stand than posing as a drowned infant,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6/feb/06/there-are-better-ways-for-ai-weiwei-to-take-a-political-stand-than-posing-as-a-drowned-infant, 2016.09.06

Ai Weiwei Instagram, Instagram, 2021.06.27, https://www.instagram.com/p/CPtlYCWsny7/?utm_medium

=copy_link

798 Art District, The Art of 798 Art District, 2021.06.21,
http://www.798district.com/en/798_discover/798_about/

Fake Design, Profiles of Selected Architects, 2021.06.17,
https://www.chinese-architects.com/fake-design-beijing